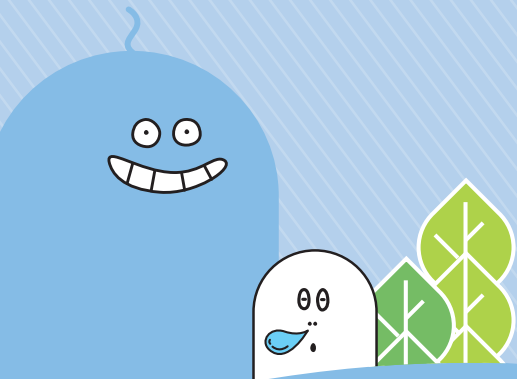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3·2

초등 국어



◦ 진도 교재	2
◦ 평가 교재	42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수행 평가

8쪽

- (1) 예 『알면 재미있는 과학 실험』
(2) 예 책 차례를 보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 읽은 날짜별로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했다. 등
• 쪽수와 소제목을 기준으로 책을 나누어 읽고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했다. 등
- (1) 예 『파브르 곤충기』
(2) 예 매미가 우는 까닭 /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알을 낳아 먹는 까닭 / 거미가 먹이를 공격하는 방법
(3) 예 매미 울음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울까? / 배추흰나비는 정말 배추만 먹을까? / 거미는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핵심 확인 문제

10쪽

- 1 × 2 생각 3 줄거리
4 ○ 5 상황

준비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하면 좋은 점 알기

11~12쪽

- 1 (1) 가, 나 (2) 다, 라 2 ④ 3 ④
4 (1) 예 깜짝 놀라며 미안해하는 표정
(2) 예 친구의 발을 살피는 몸짓
(3) 예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말투
5 ④ 6 (1) 나 (2) 다
7 ②, ③ 8 지훈

- 1 그림 가와 나 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림 다와 라 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그림 가~라의 상황

그림 가	남자아이가 뒤따라 들어오는 여자아이를 위해 문을 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림 나	여자아이가 상처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우유를 엷질러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림 라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발을 밟았습니다.

- 2 그림 나 는 여자아이가 상처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3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우유를 엷질러 당황하고 있으므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4 남자아이의 발을 밟은 여자아이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 말투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1), (2), (3)에 모두 알맞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남자아이가 실수로 친구의 필통을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6 그림 나에서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있고 그림 다에서는 반정거리는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7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는 웃지 말고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또 장난치듯 하면 안 됩니다.
8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만화 영화를 보고 표정, 몸짓, 말투의 특징 알기

13~14쪽

- 1 ④ 2 ③ 3 ⑤
4 (1) ② ○ (2) ① ○ (3) ① ○
5 ⑤ 6 ⑤ 7 ⑤
8 (1) 예 눈물을 글썽이며
(2) 예 두 손에 힘을 꼭 주며

- 1 장면 ③에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 2 친구들에게 인사할 때 어울리는 말투를 찾아봅시다.
- 3 장금이는 수라간 상궁을 처음 보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 4 수라간에서 온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끼는 장면이므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는 표정과 높고 빠른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 5 장금이가 꾸중을 듣는 장면에 어울리는 말을 찾아봅시다.
- 6 장금이가 꾸중을 듣는 상황이므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장금이의 마음에 알맞은 표정을 떠올려 봅시다.
- 7 장금이 말과 표정으로 보아 무척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8 생각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장금이의 마음을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장금이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표정과 몸짓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미미는 사람들이 언니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화가 나서 언니와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 3 자두는 미미가 자신보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몰래 발레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 4 인물의 말과 표정, 몸짓, 말투를 살펴보고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봅시다.
- 5 문제 4번에서 답한 장면을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으로 고른 까닭을 자세히 씁니다.

채점 기준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장면에 대한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인물이 어떤 일을 겪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써 봅니다.
- 7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본다고 만화 영화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보면 좋은 점

- 만화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며 만화 영화 감상하기 15~16쪽

- 1 예 학예회에서 친구들이 상을 타려고 경쟁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 2 ② 3 ③ 4 예 다
 - 5 예 미미가 발에 멍이 들면서도 열심히 연습하는 부분에서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 6 예 미미에게 무작정 화를 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니?”라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 7 (1) ×
- 1 자두와 미미가 학예회에 나가는 장면, 친구들이 무대를 구경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해 봅니다.

기본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고 대화 나누기 17~23쪽

- 1 ② 2 크기 3 내일 네 시
- 4 예 쪼그리고 앉아서 놀란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한다.
- 5 ③ 6 바나나케이크 7 정원사
- 8 ③ 9 진흙파이
- 10 (1) ○ 11 ③ 12 ⑤
- 13 (1) 예 덩실덩실 춤을 춤.
(2) 예 큰 소리로 외침.
- 14 지렁이 15 ①
- 16 만족스러운 표정
- 17 예 궁금하다는 듯이 말끝을 울리며
- 18 ① 19 ② 20 혼자
- 21 약초를 캐기 위해 등 22 ①
- 23 진희 24 친구가 되어 달라. 등
- 25 (3) ○ 26 성냥갑 상자
- 27 예시 답안 참고

- 1 부벨라가 거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부벨라를 무서워했습니다.
 - 2 모든 사람이 거인인 부벨라를 무서워했지만 지렁이는 부벨라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 3 부벨라는 지렁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내일 네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 4 부벨라가 일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부벨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써 봅니다.
- 채점 기준** 장면에서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보충 자료**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기

 -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며 글을 읽습니다.
 - 글을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합니다.
 - 이야기 속 장면을 골라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해 봅니다.
- 5 부벨라는 지렁이를 초대한 날 밤부터 그다음 날까지 집을 다 치운 다음 바나나케이크를 굽고 구멍이 하나 밖에 나지 않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 6 부벨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바나나케이크를 구웠지만, 문득 지렁이가 바나나케이크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 7 부벨라는 정원사는 지렁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 8 정원사는 부벨라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어쩐지 아파 보인다고 했으므로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는 ‘기운 없는 말투’입니다.
 - 9 정원사가 부벨라에게 지렁이를 위해 추천해 준 요리는 진흙파이입니다.
 - 10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소를 짓거나 활짝 웃는 표정이 어울립니다.
 - 11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부벨라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부벨라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 12 부벨라가 손을 들어 정원사를 가리키자 손이 점점 간지러워지고 따뜻해지더니 갑자기 정원사가 허리를 꼴꼴하게 펴더니 똑바로 섰습니다.

- 13 ㉠은 정원사가 아픈 몸이 나은 것을 기뻐하면서 한 말이므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이 일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 14 부벨라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렁이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15 부벨라는 정원사가 준 흙으로 아주 근사한 진흙파이를 만들었습니다.
- 16 부벨라가 정원을 열심히 손질해 두었기 때문에 지렁이는 정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 17 ㉠은 지렁이가 뚜껑이 덮인 그릇을 보고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묻는 말입니다.
- 18 지렁이는 진흙파이를 보고 신이 나서 진흙파이 속으로 파고들어 갔습니다.
- 19 부벨라는 사실 파리 한 마리 해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서 속상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 20 부벨라는 누구랑 사냐는 지렁이의 질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 21 부벨라는 부모님이 약초를 캐러 다부쉬다 정글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 22 지렁이는 수백 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부벨라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 23 지렁이가 진흙파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한 말이므로 친척이 알맞게 표현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 속 장면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 알아보기 ㉠

인물의 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
“정말 맛있어. 흙 맛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지 몰랐어.”	활짝 웃으며 음식을 파먹는 흥내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함.

- 24 부벨라는 지렁이에게 친구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 25 친구가 되면 부벨라에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지렁이의 질문에 부벨라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살펴 봅니다.

단원 마무리

27쪽

- 1 생생하게 2 기쁨 3 떨리는
4 춤

단원 평가

28~30쪽

- 1 (1) ㉠ (2) ㉡ 2 가 3 예 미안해
4 ㉡, ㉢, ㉣ 5 ㉠ 6 (1) ㉠
7 ㉡ 8 예 높고 빠른 목소리로
9 돈(만 원) 10 ㉠, ㉡, ㉣
11 화가 난다. 등
12 자두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등
13 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
14 지렁이 15 ㉢ 16 놀란
17 정원사 18 ㉡
19 예 활짝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20 예 「의좋은 형제」

1 그림 가는 여자아이가 상처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께 인사하는 상황이고, 그림 나 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발을 밟은 상황입니다.

2 그림 가처럼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에는 웃으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게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오답 피하기

그림 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 알맞은 미안해하는 표정과 진심이 담긴 말투가 어울립니다.

3 실수로 친구의 필통을 떨어뜨렸으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4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미안하다고 말할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

- 웃지 말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 장난치듯 하면 안 됩니다.

5 장금이는 활짝 웃으며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6 장면 가와 나 는 장금이와 친구들이 인사하는 장면이므로 높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7 장금이는 처음으로 수라간 상궁을 보고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8 장금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울리는 말투를 써 봅니다.

9 여자아이는 만 원짜리 돈을 주었습니다.

10 여자아이의 신이 난 마음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11 미미의 말과 표정, 몸짓 등을 살펴봅니다.

12 미미는 자두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몰래 발레를 배웠습니다.

13 자두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고 자두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장면 나에 어울리는 자두의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 알아보기 예

장면 가의 미미	화가 난 표정으로 높고 큰 목소리로 팔을 흔들며 말합니다.
-------------	----------------------------------

14 ㉡은 부벨라의 발 근처 땅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말하고 있는 지렁이를 가리킵니다.

15 부벨라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지렁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6 모든 사람이 부벨라를 보고 무서워했는데 지렁이가 무서워하지 않아서 놀랐을 것입니다.

17 부벨라는 정원사에게 걱정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18 부벨라는 정원사에게 지렁이가 무얼 먹고 사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19 아프지 않게 된 정원사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이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0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 극장’ 놀이를 하고 싶은지 써 봅니다.

- 1 (1) 예 문을 잡아 주어서 고마워.
(2) 예 내가 실수로 팔을 쳐서 우유를 쏟았구나. 정말 미안해.
- 2 (1) 예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말한다.
(2) 예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한다.
- 3 예 궁으로 가게 되어 무척 기쁘다.
- 4 (1) 예 눈물을 글썽이며
(2) 예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 5 (1) 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쁘고 행복함.
(2) 예 크고 높은 목소리로

- 1 그림 ㉠은 남자아이가 뒤따라 들어오는 여자아이를 위해 문을 잡아 주는 상황이고, 그림 ㉡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우유를 엇질러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채점 기준 (1)과 (2)에 모두 상황에 알맞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그림 ㉠은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림 ㉡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림 ㉠과 ㉡의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1)과 (2)에 모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장금이의 말과 표정을 살펴보면 궁으로 가게 되어 무척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장금이의 마음과 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에 알맞은 표정과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장금이의 말에 알맞은 표정과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은 맛있는 진흙파이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지렁이의 마음이 드러난 말입니다.

채점 기준 (1)에 알맞은 마음을 쓰고 (2)에 알맞은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중심 생각을 찾아요

핵심 확인 문제

34쪽

- | | | |
|------|---------|---------|
| 1 ○ | 2 중심 생각 | 3 중심 문장 |
| 4 제목 | 5 ○ | |

준비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이해하면 좋은 점 알기

35~36쪽

- 1 예 윷놀이, 달팽이 놀이
- 2 예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줄넘기를 했다.
- 3 ㉢ 4 (1) ○ (3) ○ (4) ○
- 5 다리
- 6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등
- 7 ㉠, ㉡, ㉢ 8 은미

- 1 연날리기, 씨름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 놀이를 떠올려 봅니다.
- 2 언제 줄넘기를 했는지, 줄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등을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써 봅니다.
- 3 줄넘기에 대한 글이므로 줄넘기를 한 경험과 관련지어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4 노래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것은 긴 줄 넘기입니다.
- 5 닭싸움 놀이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두 손으로 잡고, 다른 다리로 균형을 잡아 깨금발로 뛰면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 6 '닭싸움'은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채점 기준 '닭싸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두 번째 문단에 닭싸움 놀이의 다른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닭싸움 놀이의 다른 이름

- 외발 싸움, 깨금발 싸움: 한 발로 서서 하므로 지어진 이름
- 무릎 싸움: 무릎을 부딪쳐 싸운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 8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그 모습을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 읽기

37~38쪽

- 1 ㉒, ㉔, ㉕
2 예 과학 실험을 하다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3 ①, ②, ⑤ 4 과학 실험 안전 수칙
5 선생님 6 ⑤
7 (1) 선생님 (2) 장난 (3) 책상
8 예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 1 과학실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장난치지 않고, 과학실 안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화학 물질 냄새를 직접 맡거나 맛을 보면 안 되고 실험 후에는 주변 정리를 하고 사용한 약품은 정해진 폐수 통에 버립니다.
- 2 그림을 보고 과학 실험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떠올려 봅니다.
- 3 과학 실험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평소에 품었던 궁금증을 해결하며 실험을 통해 탐구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 4 과학 실험을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하려면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5 글 ②에서 알 수 있습니다.
- 6 글 ③에서 과학실에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실험 기구가 많기 때문에 장난을 치면 사람이 다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7 글에 나온 과학 실험 안전 수칙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8 이 글을 읽고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비교해 새롭게 안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알기

39~40쪽

- 1 예 갯벌을 잘 보존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려 주려는 것 같다.
2 (1) 썰물 (2) 바닷가 3 ②
4 ③
5 (1)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든다. 등
(2)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등
6 ①, ④, ⑤ 7 (3) ○
8 예 갯벌의 종류를 더 알고 싶다.

- 1 글쓴이는 글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무엇을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짐작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문단 ①에 갯벌은 어떤 곳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 3 갯벌에는 게,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삽니다.
- 4 제시된 내용은 문단 ③의 중심 문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 5 각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 정리해 봅니다.
- 6 문단의 중심 문장, 글의 제목,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 7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 8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글을 읽고 중심 생각 찾기

41~42쪽

- 1 토박이말 2 ②, ④, ⑤
3 (1) 물 (2) 더위 4 중심 문장
5 (1) ⑥ (2) ⑤ (3) ④ 6 겨울
7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을 많이 사용하자. 등
8 (1) ㉒ (2) ㉔ (3) ㉕

- 1 토박이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 2 ‘무더위’, ‘불볕더위’는 여름과 관련 있는 낱말입니다.
- 3 ‘무더위’는 ‘물+더위’로 물기를 잔뜩 머금은 더위, ‘불볕더위’는 ‘불볕+더위’로 볕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더위를 뜻합니다.
- 4 ㉠은 문단 ①, ㉡은 문단 ②, ㉢은 문단 ③의 중심 문장입니다.
- 5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봅니다.
- 6 ‘가랑눈’, ‘진눈깨비’, ‘함박눈’, ‘도둑눈’은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입니다.
- 7 글의 제목, 문단의 중심 문장 등을 살펴보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여 봅니다.

채점 기준 이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반대말은 서로 정반대되는 뜻을 담고 있는 한 쌍의 낱말입니다.

- 6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7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의 중심 생각을 알맞게 간추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전해지기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립니다.
-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합니다.
-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습니다.

- 8 ‘따뜻하다’는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는 뜻으로, 비슷한 말은 ‘뜨뜻하다’, ‘포근하다’, ‘따스하다’입니다.

실천

알고 싶은 내용이 담긴 글을 읽고 간추려 발표하기

43~44쪽

- 1 가은
 - 2 옛날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오늘날은 양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등
 - 3 ②, ⑤ 4 (1) 신분 (2) 직업
 - 5 ④ 6 ①
 - 7 예) 옛날 사람들은 신분, 성별에 따라 옷차림이 엄격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 8 뜨뜻하다, 포근하다, 따스하다
- 1 「옷차림이 바뀌었어요」라는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바르게 짐작한 사람은 가은입니다.
 - 2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②는 옛날 여자 양반들의 옷차림, ⑤는 옛날 남자 양반들의 옷차림입니다.
 - 4 문단 ②의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 5 속바지는 여자가 입었던 옷입니다.

국어 활동

45~46쪽

- 1 ③, ④ 2 포도 3 ㉡
- 4 예) 사과를 많이 먹으면 살갗도 부드러워지고 잇몸도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 5 ② 6 ③
- 7 (1) 찼다니 (2) 쥐

- 1 사과에 종이봉투를 씌워 두면 벌레도 막을 수 있고, 사과 맛도 좋아집니다.
- 2 포도는 잼이나 젤리를 만들거나,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 3 포도는 처음에는 푸르다가 검게 익고, 기침이 많이 나거나 가래가 생겼을 때 복숭아씨를 갈아 먹습니다.
- 4 글에 나온 내용 중 새롭게 안 내용을 써 봅니다.
- 5 ①은 문단 ㉠, ③은 문단 ㉢의 중심 문장입니다.
- 6 ‘퍼다’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은 ‘적다’입니다.
- 7 ‘추었다니’, ‘알려 주어’를 준말로 표현할 때에는 ‘찼다니’, ‘알려 줘’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단원 마무리

47쪽

- ① 선생님 ② 계절 ③ 제목
④ 토박이말

단원 평가

48~50쪽

- 1 ④ 2 (1) × (2) × (3) ○
3 가현 4 ⑤
5 예 닭싸움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았다.
6 ④ 7 진우 8 위험한
9 ㉠
10 예 과학실에서는 장난을 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실험해야 한다.
11 ㉡ 12 ①, ④, ⑤
13 (1) 중심 문장 (2) 제목 (3) 그림
14 ③ 15 ③
16 예 올해 겨울에는 함박눈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17 (1) ○ 18 한복 19 ①, ④, ⑤
20 옷차림

- 1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긴 줄 넘기는 노래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2 혼자서 줄넘기를 할 때에는 여러 놀이 방법이 있고, 고정된 줄을 뛰어넘는 줄넘기는 발목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3 줄넘기에 대한 글이므로 줄넘기를 한 경험을 말한 사람을 찾습니다.
4 ‘닭싸움’은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이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5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이 무엇인지 써 봅니다.
6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읽는다고 해서 글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좋은 점

- 내용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 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 7 과학 실험을 할 때 화학 물질 냄새를 직접 맡아서는 안 됩니다.

- 8 과학실에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실험 기구가 많기 때문에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9 과학실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0 알고 있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이 글의 중심 문장은 ㉡입니다.

보충 자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을 보충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

- 12 글쓴이는 글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글의 제목을 보면 무엇을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3 문단의 중심 문장, 글의 제목,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 도둑눈은 밤에 사람들이 모르게 내린 눈으로, 사람들이 몰래 왔다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랑눈: 조금씩 잘게 부서져서 내리는 눈
② 함박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
④ 싸라기눈: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⑤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 15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하여 보고, 중심 생각을 잘 드러내는 제목을 찾아봅니다.
16 글에서 겨울과 관련 있는 토박이말을 찾고 그 낱말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겨울과 관련 있는 토박이말을 골라 그 낱말의 뜻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7 ‘퍼다’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은 ‘점다’입니다.
18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고유한 옷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19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옛날과 오늘날에 어떻게 다른지 신분과 성별, 옷감 종류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20 제목을 보면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술형 평가

51쪽

- (1) 예 지난번 체육 시간에 번갈아 뛰기, 뒤로 뛰기 줄넘기를 했다.
(2) 예 혼자서 외발 뛰기와 뒤로 뛰기, 번갈아 뛰기를 하며 줄을 넘는다.
- 실험하다가 만약 실험 기구가 넘어지면 깨진 기구의 조각이나 기구 속 화학 약품이 튀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등
- 예 • 실험실에서는 시약병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는다.
• 실험 기구를 조심히 다룬다.
-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말로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한다. 등
- (1)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말을 알아보자. 등
(2) 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에는 ‘꽃샘추위’, ‘꽃샘바람’, ‘소소리바람’ 같은 말이 있다. 등

- 줄넘기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줄넘기한 경험을 떠올려 (1)과 (2)에 모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실험하다가 실험 기구가 넘어지면 깨진 기구의 조각이나 기구 속 화학 약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아야 합니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아야 하는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글을 읽고 자신만의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만의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만들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첫 문단에 나타난 토박이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토박이말이 무엇인지 알맞게 정리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이 글에서는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채점 기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모두 바르게 찾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핵심 확인 문제

54쪽

- | | | |
|------|-----|--------|
| 1 언제 | 2 × | 3 고쳐쓰기 |
| 4 수 | 5 ○ | |

준비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55쪽

- ③ 2 수민
- (1) 예 할머니와 송편을 만든 일
(2) 예 내 손으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 ③, ④

- 눈썰매장에서 썰매를 탄 일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수민만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강희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민주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과 그 까닭을 씁니다.
-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면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일을 글로 쓸 수 있습니다.

기본

자신의 경험에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 알기

56~57쪽

- (1) ④ (2) ① (3) ② (4) ③
- (1) 예 학교에서 공부한 일
(2) 예 동생이 아팠던 일
- 예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 지난밤에 동생 주혁이가 아팠다. 등
- (1) 예 가족과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간 일
(2) 예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보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다.
- (2) ×

- 서연이는 아침에 학교에 갈 준비를 했고,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 서연이가 겪은 일을 살펴보고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일과 다른 일을 떠올려 씁니다.
 - 서연이가 하루 동안 겪은 일 가운데에서 자신이 서연이라면 글로 쓰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골라 씁니다.
 - 밤에 동생 주혁이가 아파서 아빠는 병원에 갈 채비를 하였고, 서연이는 동생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일을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씁니다.
-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과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두’는 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번째’는 하나의 낱말로 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두 번째네.’라고 띄어 써야 합니다.

기본 인상 깊은 일로 글 쓰기 58쪽		
1 ③, ⑤	2 ㉠	3 ①, ③, ⑤
4 ⑤		

- ①, ④는 가을에, ②는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 ㉠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쓴 것이고, ㉠은 그 일을 겪었을 때의 마음을 쓴 것입니다.
- 상상한 일이 아닌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또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제목은 글에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기본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기 59쪽		
1 ㉠, ㉡, ㉢	2 ①, ④	
3 (1) ×	4 기영, 수민	

- 완성한 글을 친구와 바꾸어 읽고 자신이 점검한 내용과 친구의 의견을 모아 고쳐 씁니다.
- 이 글은 있었던 일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이/가’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감들이 V주렁주렁’이라고 띄어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 글을 고쳐 쓸 때 재미있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천 우리 반 소식지 만들기

60쪽

- ②
- 투표
- 예시 답안 참고

-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소식지에 담아야 하므로 가족과 함께한 경험은 알맞지 않습니다.
-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들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그릴 때에는 기억에 남는 일 다섯 가지를 투표로 정합니다.
- 자신이 맡은 사건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도 좋습니다.

예시 답안

예 독서 잔치



우리 반에서는 국어 시간에 독서 단원을 배우고 나서 독서 잔치를 열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했다. 특히 1학기에 처음으로 우리 모둠끼리 책을 읽고 모둠 협동화를 그려서 전시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 2학기에 우리 모둠이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국어 활동

61쪽

- 1 (1) ㉠ (2) ㉡ (3) ㉢ (4) ㉣ (5) ㉤
 2 (2) ○
 3 (1) 비빔냉면은 매콤하고, 물냉면은 시원하다.
 (2) 예쁜 신 한 켤레

- 1 인상 깊은 일로 쓴 글의 각 내용에 알맞은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씁니다.
 2 그림 ㉠은 ‘아기가 오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림 ㉡는 ‘예쁜 손수건으로 닦아.’라고 써야 올바르게.
 3 쉽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써야 하고,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도 띄어 써야 합니다.

단원 마무리

62~63쪽

- 1 운동 2 인상 3 걱정
 4 두 번째네 5 기억 6 점검표
 7 가족 8 고쳐

단원 평가

64~66쪽

- 1 (1) ㉡ (2) ㉢ (3) ㉠ 2 ㉠
 3 (1) 예 5월 (2) 예 학교 운동장
 (3) 예 친구들과 공 굴리기,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했다.
 (4) 예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즐거웠다.
 4 ㉠ 5 ㉡
 6 예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쓰고 싶다.
 7 ㉡, ㉢ 8 ㉢
 9 지난밤에 동생 주혁이가 아팠다. 등
 10 ㉡ 11 하늘이 맑고 푸르다.
 12 (2) ○ 13 (4) ×
 14 (1) 내용 (2) 표현 15 (2) ○
 16 (1) ○ (2) × (3) ×
 17 마침표(.)나 쉽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쓴다. 등
 18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등
 19 예 모듬 농장을 가꾼 일
 20 ㉢

- 1 그림 ㉠은 수영을 한 일, 그림 ㉡는 피자를 만든 일, 그림 ㉢는 축구를 한 일을 그린 것입니다.
 2 그림 ㉠은 갯벌 체험을 한 일을 그린 그림이므로 이 일을 겪은 친구는 ㉠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3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했는지 정리하여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각 항목에 맞게 표에 정리했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는 방법

-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봅니다.
-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 봅니다.
-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표현해 봅니다.

- 4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는 것과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5 동생 주혁이와 다룬 일은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6 서연이가 겪은 일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씁니다.
 7 평소에 일어난 일이나 평소와 달리 특별하게 생긴 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진 일을 골라 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8 ‘나’는 동생 주혁이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9 ‘나’는 지난밤에 동생 주혁이가 열이 많이 나서 부모님께서 동생을 돌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생이 아픈 모습을 본 ‘나’는 마음이 아프고 동생이 얼른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띄어 쓴다는 점을 알고 알맞은 곳에 √표를 합니다.
 12 봄과 여름에 있었던 일을 그린 것으로 보아 계절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린 것입니다.
 13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할 때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와 같이 그 일을 겪었을 때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14 고쳐쓰기를 하면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 면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도
교재

15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므로 (2)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1)과 같이 띄어 쓰면 채소인 '나물'을 달라는 뜻이 됩니다.

16 (2)는 '친구들을'이라고 붙여 써야 하고, (3)은 '불게 물 든다.'라고 띄어 써야 합니다.

17 이 글의 부분은 마침표(.)와 쉼표(.) 뒤에 오는 말을 붙여 썼습니다.

채점 기준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쓰지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8 글쓴이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고 했습니다.

19 지금까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씁니다.

20 모듬별 소식지를 만들 때 모듬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일 다섯 가지를 하나씩 말아서 골고루 넣어야 하므로, 원하는 사건이 겹치면 양보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서술형 평가

67쪽

1 (1) 예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은 일

(2) 예 생일이 학기 초여서 반 친구들과 서먹서먹할 때였는데 친구가 먼저 다가와 생일 선물을 주어서 기뻛고, 앞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2 예 동생이 아픈 것은 평소에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나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진 일을 골라 정한다. 등

4 (1)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2)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3) 우리 여섯 명은 친한 친구 사이다.

5 (1) 예 친구들과 피구를 한 일

(2) 예 가족과 함께 수박을 먹은 일

(3) 예 과수원에서 감을 따 본 일

(4) 예 눈썰매장에 가서 썰매를 탄 일

1 그림의 남자아이는 어른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씁니다.

채점 기준 남자아이가 어른께 선물을 받고 있는 그림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글로 쓸 인상 깊은 일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여 '내'가 이 일을 글로 쓴 까닭을 짐작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내'가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쓴 까닭을 알맞게 짐작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내가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쓰기로 정한 까닭

- 동생이 아픈 것은 평소에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아픈 동생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동생을 잘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3 평소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쓰거나 특별하게 생긴 일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진 일을 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쓸 때 무엇을 쓸지 정하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띄어쓰기 방법을 생각하며 각 문장을 바르게 띄어 씁니다.

채점 기준 (1)~(3)의 각 문장을 모두 바르게 띄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띄어쓰기 방법

-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쓴다.
-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쓴다.
-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쓴다.

5 자신이 일 년 동안 경험한 일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겪었던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각각에 씁니다.

채점 기준 각 계절에 경험한 인상 깊은 일을 알맞게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감동을 나타내요

핵심 확인 문제

70쪽

- 1 감각적 표현 2 폭신폭신킨, 보들보들
3 (3) × 4 편지 5 ○

준비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느낌 나타내기

71쪽

- 1 감각적 표현 2 ④
3 (1) 동글동글 (2) 매끈매끈
4 예) 축구공을 뽕 찼습니다.
5 ㉠, ㉡ 6 ①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알게 된 대상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 곰 인형에는 ‘폭신폭신킨’, ‘꼬불꼬불’ 등의 표현이 어울립니다.
- 사과의 모양이나 사과를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고, 대상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찾습니다.

오답 피하기

- (1) ‘펄럭펄럭’은 바람에 잇따라 빠르고 힘차게 나부끼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2) ‘꼬불꼬불’은 이리로 저리로 고부라지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축구공을 찰 때 나는 소리, 축구공의 모양이나 축구공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을 감각적 표현을 넣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축구하는 모습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

- 뽕
- 데굴데굴
- 왁자지껄
- 요리조리

- 굴을 표현할 때 ‘까끌까끌하다, 뽕뽕뽕하다’와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예

- 모양이 공처럼 둥그스름하다.
- 만지면 말랑말랑한 느낌이다.
- 맛이 새콤달콤하다.

- ①은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쓴 것입니다.

기본

시를 읽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 말하기

72쪽

- 1 ④ 2 ③
3 감기약을 먹고 몸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등
4 ①, ④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 등 힘 들어하고 있습니다.
- ‘내’ 몸에 ‘불덩이, 몹시 추운 사람, 거북이, 잠꾸러기’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 감기약을 먹고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임이 느려졌기 때문에 거북이가 들어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시가 더 재미있어지고,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보충 자료 「감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 불덩이가 들어왔다.
-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
- 거북이도 들어오고
-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 뜨끈뜨끈, 오들오들, 느릿느릿, 까무룩

기본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 나누기

73쪽

- 1 ④ 2 ④ 3 굴질굴질
4 (1) ○ 5 태우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강가 고운 모래밭에 있습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강가 모래밭에서 발가락을 움지락거리며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구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여 ‘굴질굴질’ 움직였다고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발가락으로 모래 속을 파고들자 모래가 움직였고, 이것을 지구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구가 대답해 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자신의 작은 신호에도 지구가 대답해 준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에도 자연이 대답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진도
교재

기본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74~79쪽**

- 1 투명 인간의 이야기 **2 ②**
- 3 피아노 조율사
- 4 ③ **5 ⑤**
- 6 정확한 음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 7 ⑤
- 8 비(b) 플랫 건반이 이상한 문제 등
- 9 ①, ⑤
- 10 블링크 아저씨는 다른 사람보다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이 발달했다. 등
- 11 에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등
- 12 ④
- 13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는 일 등
- 14 (1) 푸른색 (2) 붉은색 (3) 흰색 (4) 초록색
- 15 예 굴껍질 냄새 **16 ⑤**
- 17 에밀은 아저씨에게 색깔을 설명해 주고, 블링크 아저씨는 색깔을 떠올리고 자신의 느낌을 악기로 연주했다. 등
- 18 ④ **19 (감자를 갈 때 쓰는) 강판**
- 20 ⑤ **21 ②**
- 22 블링크 아저씨 **23 ②**
- 24 (1) 예 인물에게 편지 쓰기
(2) 예 에밀 엄마에게 에밀이 피아노 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바라는 점을 쓰고 싶다.

- 1 에밀은 단팥인 폴에게 투명 인간이 된 남자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습니다.
- 2 엄마는 피아노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 중에서 에밀이 피아노를 제일 잘 치기를 원했지만 에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3 블링크 아저씨는 피아노 조율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 4 엄마가 에밀의 피아노 음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아노 조율사인 블링크 아저씨를 집으로 부른 것입니다.
- 5 시각 장애인인 블링크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 6 에밀은 식당에서 정확한 음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마치 투명 인간이 치는 듯한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 7 에밀이 직접 치지 않아도 피아노가 정확한 음을 자동으로 연주하면 자신의 피아노 실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8 에밀은 피아노 음이 맞지 않아서 피아노 조율을 부탁하려고 블링크 아저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채점 기준 비(b) 플랫 건반이 이상한 문제 또는 피아노 음이 맞지 않는 문제와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블링크 아저씨는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에밀네 집 냄새와 에밀의 바지가 구겨지는 소리, 그 밖에 설명하기 애매한 것들로 집에 온 사람이 에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10 블링크 아저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다른 감각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채점 기준 블링크 아저씨가 어릴 적부터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이 발달했다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투명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블링크 아저씨는 눈으로 에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밀을 투명 인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 12 아저씨도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에밀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 13 에밀은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고 색깔을 떠올리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 14 (1)은 푸른색, (2)은 붉은색, (3)은 흰색, (4)는 초록색을 떠올린 것입니다.
- 15 에밀이 색깔을 피부의 느낌이나 맛으로 설명한 것처럼 주황색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보충 자료 자신이 에밀이라면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싶은지 쓰기 예

갈색	거칠고 딱딱한 나무 기둥을 만지는 느낌
푸른색	한여름 바다에서 물장구치는 소리
주황색	굴껍질 냄새

- 16 에밀이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 드리려고 한 것처럼 아저씨도 색깔에 대한 느낌을 악기로 연주하여 표현했습니다.
- 17 에밀과 블링크 아저씨는 색깔을 각자의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 18 에밀은 아저씨가 진짜 색깔을 볼 수 없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 19 에밀은 작은 점으로 된 글씨가 오тол도톨 나 있는 점자 책을 만지며 감자를 갈 때 쓰는 강판을 만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20 에밀은 블링크 아저씨에게 세상 모든 색을 들려주고 싶어서 피아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 21 에밀은 책에서 본 투명 인간처럼 얼굴을 봉대로 칭칭 감은 사람이 집에 있어서 놀랐습니다.
- 22 에밀이 본 진짜 투명 인간은 수술을 받고 얼굴에 봉대를 감은 블링크 아저씨였습니다.
- 23 블링크 아저씨는 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안구를 기증받아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 24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르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생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⑤에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쌩쌩’이라는 사람이나 물체가 바람을 일으킬 만큼 잇따라 매우 빠르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 ② ‘주렁주렁’이라는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 ③ ‘새근새근’이라는 어린아이가 곤히 잠들어 조용하게 자꾸 숨 쉬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 ④ ‘반짝반짝’이라는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 4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따가운 밤송이의 촉감과 닮은 대상을 찾아봅니다.
- 5 대상에 대한 느낌을 짧은 글로 써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합니다.

채점 기준 주어진 대상과 느낌에 맞게 짧은 글로 노래하듯이 표현했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느낌을 살려 시 쓰기

80쪽

- 1 하늘에 사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 등
- 2 (3) ○ 3 ⑤ 4 ⑤
- 5 예) 손만 대도 / 두근두근 / 설레는 선물.
- 1 ‘우르르 쿵쿵’ 하는 천둥소리를 하늘에 사는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 2 천둥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①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천둥소리」의 표현 방법

-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짧은 글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 천둥소리를 하늘 나라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처럼 표현했습니다.
- ‘우르르 쿵쿵’처럼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국어 활동

81~84쪽

- 1 (2) × 2 뽕나무 등 3 ②
- 4 (1) ○ 5 ⑤ 6 ①
- 7 (1) 예) 여러 가닥이 자꾸 어지럽게 늘어서 흔들리는 모양
(2) 예) 물결 따위가 보드랍게 자꾸 굽이쳐 움직이는 모양
- 8 ⑤ 9 신통하다. 등
- 10 물개 (떼) 11 ⑤
- 12 ①, ③, ② 13 만날
- 14 (1) 이쁘다 (2) 마을 (3) 빠지다

- 1 「나무 타령」은 나무의 이름을 감각적 표현으로 재미있게 나타낸 노래로, ‘술술’과 같은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 2 방귀를 핀다는 것과 관련되는 나무의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 3 초승달은 ‘물바가지, 낫, 머리빗, 꼬까신’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 4 초승달의 실제 모습은 눈썹 모양입니다.
- 5 배에 탄 사람들은 밤새 높은 파도와 무서운 바람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 6 선달은 바닷물이 물을 삼킨 것을 보고 땅이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7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인 ‘너털너털’, ‘남실남실’의 뜻을 짐작하여 써 봅니다.

보충 자료 ‘너털너털’, ‘남실남실’과 뜻이 비슷한 낱말

너털너털	예 너털너털
남실남실	예 넘실넘실, 늠늠실실

- 8 선달은 책에서 읽은 대로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 나오는 김을 식혀 받아서 먹을 물을 만들었습니다.
- 9 선달이 먹을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에는 모두 그를 의심했지만 선달이 먹을 물을 만들어 내자 기뻐하며 그를 신통방통하게 생각했습니다.
- 10 사람들은 배 옆을 헤엄치는 수십 마리 물개 떼를 발견했습니다.
- 11 물개가 배를 따르는 것은 살겠다는 점괘로, 물개를 죽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12 배가 높은 파도를 만나 떠돌게 되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선달이 물을 마련했고, 이후 물개가 이끄는 배를 타고 물에 도착했습니다.
- 13 예전에는 ‘만날’만 표준어였으나 사람들이 ‘맨날’을 많이 쓰자 두 낱말 모두 표준어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14 **보기**에 제시된 낱말을 보고 뜻이 비슷한 낱말을 떠올려 국어사전에서 그 낱말이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원 마무리

85쪽

- ① 불덩이 ② 굴질굴질 ③ 색갈
④ 투명 인간 ⑤ 만화

단원 평가

86~88쪽

- 1 (2) ○ 2 ④
3 예 공처럼 둥그스름한 굴 4 감기
5 ③ 6 ④
7 예 ‘뜨끈뜨끈’, ‘오들오들’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감기에 걸린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8 예 따가운 가시를 만지는 느낌이 든다.
9 (1) ×
10 발가락으로 모래밭에 파고드는 것 등
11 (1) ○ (3) ○
12 아저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등
13 아무것도 없는 것 14 ③
15 블링크 아저씨 16 ⑤
17 예 한여름 바다에서 물장구치는 소리 / 차가운 눈을 만졌을 때의 느낌
18 (2) × 19 예 조약돌 / 얼음
20 (1) ③ (2) ② (3) ①

- 1 곰 인형의 털의 모양과 어울리는 표현은 ‘보들보들’입니다. ‘아삭아삭’과 ‘거칠거칠’은 곰 인형의 모양이나 만졌을 때의 느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 2 사과의 둥그란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알맞은 표현은 ‘둥글둥글’입니다.

오답 파하기

- ① ‘뽕’은 공 따위를 아주 세게 차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② ‘일렁일렁’은 크고 긴 물건 따위가 자주 이리저리로 크게 흔들리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③ ‘푹신푹신’은 여럿이 다 또는 매우 푸근하게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⑤ ‘왁자지껍’은 여럿이 정신이 어지럽도록 시끄럽게 떠들고 지껄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 3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 4 말하는 이는 감기 때문에 열이 나고 추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5 감기에 걸려 몸에서 열이 나는 상태를 ‘불덩이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6 약을 먹고 졸린 상태를 ‘까무룩, / 잠꾸러기도 들어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7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며 시를 읽고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씁니다.

채점 기준 시에 사용된 감각적 표현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감각적 표현의 느낌을 살려 노랫말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씁니다.

9 (1)은 보거나 듣거나 만져서 느낀 감각적 표현이 아닙니다.

10 말하는 이가 말한 작은 신호는 발가락으로 모래 속을 파고드는 것을 뜻합니다.

11 아저씨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에밀네 집 냄새와 에밀의 바지 구겨지는 소리를 통해 에밀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12 아저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다른 감각들이 발달되었다고 했습니다.

13 뭐가 보이냐는 에밀의 물음에 아저씨는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14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인물 책갈피를 만들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5 ‘나’는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설명해 주려고 색깔을 떠올리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16 가장 푸른색인 것은 옆집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 자신이라면 푸른색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감각적 표현으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푸른색을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게 나타냈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8 천둥소리를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시입니다.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시로 쓴 것이 아닙니다.

19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에는 두 대상의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따위에서 닮은 점을 찾습니다.

20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

89쪽

진도
교재

- 1 예 감기에 걸려 몸이 오들오들 떨리기 때문이다.
- 2 예 넣고 읽을 때 더 재미있고,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 3 예 발가락을 구부려서 두더지 발톱처럼 만들어 모래밭으로 파고드는 모습
- 4 예 추석날 밤에 할머니 댁에서 들은 풀벌레 소리가 지구가 숨 쉬는 소리 같았다.
- 5 예 아주 매운 고추를 먹고 난 뒤의 느낌
- 6 예 블링크 아저씨가 피아노로 색깔을 표현하는 장면이 감동 깊었다.

1 감기에 걸려 몸이 춥고 떨리는 상태를 몹시 추운 사람이 몸에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채점 기준 감기에 걸려 몸이 춥고 떨리기 때문이라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감각적 표현을 넣으면 시가 더 재미있고 느낌이 생생해집니다.

채점 기준 두 낱말을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를 비교하여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처럼 발로 모래 속에 파고든 모습을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채점 기준 발가락으로 모래 속을 파고드는 모습이라고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말하는 이는 자신의 행동에 지구가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한 경험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지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에밀이 붉은색을 맛으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라면 어떻게 붉은색을 감각적으로 표현할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붉은색을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게 나타냈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6 글을 읽고 가장 감동 깊었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씁니다.

채점 기준 글에서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바르게 대화해요

핵심 확인 문제

92쪽

- 1 목적 2 높임 표현 3 하지 않습니다
4 (1) × 5 ○

준비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떠올리기

93~94쪽

- 1 ②
2 진수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등
3 문구점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등 4 ④
5 (1) 친구 (2) 선생님 6 (1) ㉠ (2) ㉡
7 대화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 듣는 사람이 친구인 경우와 선생님인 경우로 다르기 때문이다. 등
8 ①, ③, ⑤

- 1 진수와 엄마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보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2 진수는 수정이가 자신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끊어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3 진수가 문구점에서 풀 값을 물어보는데 큰 소리로 대화하는 친구들 때문에 문구점 주인아저씨가 제대로 듣지 못하여 진수에게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4 여자아이가 진수에게 가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데 진수가 가위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5 대화 ㉠에서는 친구가 진영이의 그림을 칭찬하고 있고, 대화 ㉡에서는 선생님께서 진영이의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대화 ㉠과 ㉡에서 진영이의 대화 상대



- 6 같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친구에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7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대화 상대가 친구와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대화 상황인지, 상대의 기분은 어떠한지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 ②: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대화합니다.
④: 상대가 웃어른일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본

대상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말하기

95~97쪽

- 1 할머니 2 ② 3 높임 표현
4 ④ 5 나왔습니다 6 ⑤
7 ② 8 드시고 계세요. 등
9 (1) ① (2) ②
10 예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과 웃어른과 대화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1 네. 이 책이 재미있습니다. 등 12 우진

- 1 대화 ①은 할머니께서 과일을 사 오셔서 승민이가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대화 ②는 할머니께서 승민이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물으셔서 승민이가 대답하는 상황입니다.
2 승민이는 할머니께 상황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승민이는 할머니께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 공손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승민이가 대견하실 것입니다.
5 '나오셨습니다'라고 하면 사물인 사과주스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 6 사과주스와 같은 사물은 높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 7 어머니와 승민이가 할아버지께서 뭐 하시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 8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웃어른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9 친구와 대화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 10 친구와 웃어른께는 대화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채점 기준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하고 친구에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은 친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12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기본

전화할 때의 바른 대화 예절 알기 98~100쪽

- 1 ㉠ 2 ㉠ 3 (1) ○ (3) ○
- 4 ㉡, ㉢
- 5 전화를 건 수진이가 예원이 언니를 예원으로 잘못 알고 이야기하고 있다. 등
- 6 ㉠
- 7 지수가 계속 자신이 할 말만 했기 때문이다. 등
- 8 (1) ㉡ (2) ㉠ 9 ㉠
- 10 ㉡ “네, 전해 드릴게요. 할머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11 (1) 작은 (2) 큰 12 ㉠

- 1 전화를 건 지원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민지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 2 지원이는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화 대화에서는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지가 지원이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 3 대화 ㉡에서 지원이는 전화를 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대화 ㉢에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대화 ㉡와 ㉢에 나타난 문제점



- ➡ 전화를 건 지원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 민지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 ➡ 지원이는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화 통화에서는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민지가 몰랐습니다.

- 4 친구나 동생에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를 받는 사람과 건 사람이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멀리 있는 사람과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5 수진이는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아 실수를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수진이가 전화 예절을 지키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수진이는 전화를 받은 예원이 언니를 예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7 지수가 정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만 했기 때문에 정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 8 대화 ㉠. ㉡에서 전화로 대화를 할 때 잘못된 점을 생각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선으로 잇습니다.
- 9 할머니께서는 하실 말씀이 아직 더 남아 있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서 당황하셨습니다.
- 10 대답을 한 후 전화를 바로 끊지 않고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 11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 12 전화 대화를 할 때에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기본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하기

101~102쪽

- 1 (1) ○ 2 ⑤ 3 ⑤
4 속상해하는 말투 등 5 ②, ③
6 ㉠ 7 놀라면서 당황했을 것이다. 등
8 ③

- 1 강이는 비 오는 날 밝은 노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 2 강이는 검은색 옷을 입고 싶어했지만 엄마가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하셔서 밝은 노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 3 훈이가 노란색 옷을 입은 강이를 유치원생 같다고 놀려서 강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 4 강이의 상황으로 보아 불만스러운 말투, 속상해하는 말투 등이 어울립니다.
- 5 엄마는 강이에게 비 오는 날 우산으로 앞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땅을 쳐다보고 걷지 말기를 당부하셨습니다.
- 6 훈이는 앞을 보지 않고 횡단보도로 뛰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 7 친구가 차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봤으니 강이는 크게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 8 귀찮은 듯 느린 몸짓이 아니라 다급하게 친구를 말리려는 몸짓이 어울립니다.

실천

언어 예절에 맞게 역할놀이하기

103쪽

- 1 ③ 2 (1) 할아버지 (2) 남동생
3 ②
4 예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해야 한다. / 대상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해야 한다. / 언어 예절을 지키며 대화해야 한다.

- 1 우리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 2 미나는 할아버지와 남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각각 조사하셨습니다.
- 3 미나는 할아버지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고, 남동생에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 4 예절을 지키고 상황에 어울리는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04~105쪽

- 1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상황 3 (1) ② (2) ② 4 작은
5 ㉠ 6 (1) ① (2) ② (3) ③
7 (1) 답따파다 (2) 끈차마자
8 (1) 야칸 (2) 섭씨파다

- 1 전화를 할 때에는 은미가 기준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 2 대화 ②에서 ㉠을 말한 여자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는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 3 대화 ㉠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을 골라야 하고, 대화 ㉡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힌 것을 골라야 합니다.



- 4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 5 ㉠과 같은 말을 들으면 친구에게 섭섭하고 짜증날 것입니다.
- 6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그때 마음은 어떠할지 생각합니다.
- 7 ‘ㅂ’, ‘ㅅ’이 ‘ㅎ’과 만나면 [ㅍ], [ㅊ]으로 발음됩니다.
- 8 ‘ㄱ’, ‘ㅂ’이 ‘ㅎ’과 만나면 [ㅋ], [ㅍ]으로 발음됩니다.

단원 마무리

106~107쪽

- | | | |
|------|------|--------|
| 1 기분 | 2 사물 | 3 웃어른 |
| 4 갔어 | 5 자신 | 6 공공장소 |
| 7 표정 | | |

단원 평가

108~110쪽

- | | |
|--|----------|
| 1 ㉠ | 2 기분 등 |
| 3 할머니와 승민이가 학교생활을 주제로 대화하는 상황 등 | |
| 4 ㉡, ㉢ | 5 나왔습니다 |
| 6 드시고 계세요 | |
| 7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웃어른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 | |
| 8 (1) ㉠ (2) ㉡ | 9 ㉢ |
| 11 ㉢ | 12 ㉢ |
| 13 예 정아야, 미안해! 내 생각만 말했구나. 네 생각은 어때? | |
| 14 ㉢ | 15 ㉢ |
| 16 회사에 갔어요. 등 | 17 (2) × |
| 18 ㉢ | 19 높임 표현 |
| | 20 윤영 |

- 1 여자아이가 진수에게 가위를 빌리려고 하는데 진수가 여자아이에게 가위를 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 2 진수는 여자아이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거절하는 말해야 합니다.

- 3 할머니께서 승민이에게 학교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셔서 승민이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 4 승민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공손한 태도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 5 사과주스는 사물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6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7 웃어른께는 ‘먹다’가 아니라 ‘드시다’라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할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웃어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친구와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웃어른과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 대화해야 합니다.
- 9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과 웃어른과 대화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10 지원이는 전화를 걸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전화를 받은 민지가 궁금해하였습니다.
- 11 전화를 걸면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12 지수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였습니다.
- 13 전화 대화를 할 때에 자기 할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 15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 16 웃어른과 대화하는 상황이므로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 17 다급한 말투가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 18 친구를 실수로 쳤으니 미안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 19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 20 표정도 신경 쓰며 대화해야 합니다.

서술형 평가

111쪽

- 1 예 엄마와 대화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 2 공손한 태도로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등
- 3 나왔습니다, 사과주스가 사물이라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
- 4 전화로는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등
- 5 “미나야,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해. ‘할아버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라고 여쭙어보면 좋을 것 같아.”

- 1 어머니와 같은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런 상황을 본 경험을 떠올립니다.

채점 기준 웃어른께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승민이는 바른 태도로 웃어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공손한 태도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사과주스는 사물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왔습니다’는 높임 표현입니다.

채점 기준 ‘나왔습니다’로 반드시 고쳐 써야 하고, 그 까닭에는 사과주스가 사물이라 높임 표현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지원이는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화 통화에서는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민지는 몰랐습니다.

채점 기준 전화 대화를 할 때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미나가 할아버지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나고 여쭙어보는 상황입니다.

채점 기준 웃어른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6.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핵심 확인 문제

114쪽

- 1 인물의 나이 2 감정 3 ×
- 4 (2) ○ (3) ○ (4) ○

준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 본 경험 떠올리기

115쪽

- 1 (1) ② (2) ③ (3) ① (4) ④ 2 행복하다
- 3 ①, ④ 4 예 괜찮니? / 다친 데는 없니?

- 1 그림 가~라 는 우리 주변에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상황에서는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 3 마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에게는 걱정하며 위로하는 말이 어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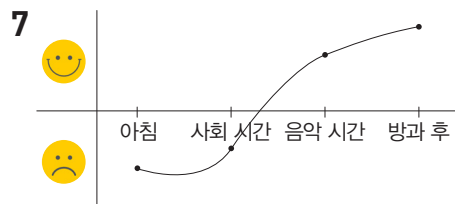
채점 기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이야기를 듣고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하기

116~117쪽

- 1 ④ 2 속상한 마음 등
- 3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4 ②, ④
- 5 리코더 연주 방법 6 ⑤



- 8 (1) 예 체육 시간 (2) 예 피구를 하다가 공에 맞음. (3) 예 화난 마음, 속상한 마음

- 1 규리는 아침에 더 자고 싶었지만 엄마가 깨워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 2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느라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 3 1교시 사회 시간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규리가 규리네 모둠의 발표자였습니다.
- 4 규리는 자신이 발표를 하면서 실수를 할까 봐 걱정스럽고 불안했습니다.
- 5 규리는 3교시 음악 시간 내내 민호의 리코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 6 규리는 민호에게 리코더 연주를 가르쳐 주며 자랑스러웠고,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 7 규리가 겪은 일의 차례에 알맞게 그때의 마음을 표시하면 규리의 마음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규리의 마음 변화

- 글 ①: 속상한 마음
 ➡ 글 ②: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 글 ③: 자랑스러운 마음
 ➡ 글 ④: 행복한 마음

- 8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씁니다.

기본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며 글 읽기

118~121쪽

- 1 (운동회의) 박 터뜨리기
- 2 당황했을 것이다. 등 3 ①
- 4 ② 5 이어달리기 6 (3) ○
- 7 ⑤ 8 거북이(나기찬) 9 이호
- 10 ③
- 11 기찬이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였다. 등
- 12 ⑤ 13 ① 14 ㉠
- 15 ⑤
- 16 예 친구들의 착각이나 야유, 응원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이호가 올 때까지 이어달리기를 끝까지 하는 기찬이의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 1 친구들은 책가방을 향하여 암체공을 던지며 박 터뜨리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 2 기찬이는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사과를 하지 못 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 3 기찬이는 운동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회가 싫었습니다.
- 4 기찬이는 친구들이 놀려서 속상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 5 기찬이는 '이어달리기'라고 쓰인 쪽지를 뽑았습니다.
- 6 달리기를 못하는 기찬이는 점수가 가장 높은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 7 이호는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전날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배 속이 안 좋아서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 8 친구들은 기찬이를 '거북이 나기찬'이라고 부르며 달리기에서 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9 이어달리기에서 기찬이 다음 선수는 이호였습니다.
- 10 이호는 배가 아픈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 11 점점 뒤쳐져서 백군의 마지막 선수와 달리고 있는 기찬이를 보고 친구들은 기찬이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 12 친구들이 자신을 응원하자 기찬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 13 이호가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기찬이가 계속 달렸고, 결국 기찬이네 반이 속한 청군은 한 바퀴나 차이 나게 지고 말았습니다.
- 14 이호는 이어달리기는 자신만 믿으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화장실을 가느라 달리기를 하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 15 경기에서 비록 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뿌듯할 것입니다.
- 16 기찬이가 한 일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나 기찬이에게 묻고 싶은 말을 씁니다.

채점 기준 기찬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기본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을 전하는 글 쓰기 122~123쪽

- 1 ④ 2 ④
 3 주은이가 말로는 사과한다고 했지만, 표정이나 분위기, 말한 내용이나 행동이 사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
 4 예 사과하는 쪽지를 쓸 것이다.
 5 ④ 6 준수식
 7 (1) ○ (2) ○ (3) ○

- 1 주은이가 원호와 딱지치기를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2 주은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 화가 날 것입니다.
 3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채점 기준 주은이의 표정이나 분위기, 말한 내용이나 행동이 사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미안해하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떠올려 씁니다.
 5 편지에 ‘너 화났냐?’와 같은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6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길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 주은이는 쪽지를 받을 사람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사과할 일을 썼습니다.

실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 쓰기 124쪽

- 1 10월 넷째 주 2 ②
 3 예 지난주에 다툼 짝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4 ㉠, ㉡, ㉢

- 1 10월 넷째 주에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이라는 이름으로 각 반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 2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따위를 전하는 행사입니다.
 3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있었던 일을 떠올린 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씁니다.

채점 기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웃어른께 쓸 때에 높임 표현에 맞게 써야 합니다.

국어 활동 125~126쪽

- 1 ② 2 ㉠ 3 (2) ○ (3) ○
 4 예 많이 우는 걸 보니 많이 속상한가 보구나.
 5 ㉠ 6 (1) 있었는데 (2) 숨겼대
 7 ㉡

- 1 ‘야호, 신난다!’나 텀블링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생일 초대장을 받고 행복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대화 내용으로 보아,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길렀던 찌돌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인물의 생김새는 인물의 마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4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5 ㉠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한 것이 아닙니다.
 6 ‘있었는데’, ‘숨겼대’로 써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는)대’와 ‘-(는)데’

-(는)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할 때 씁니다.
-(는)데	말하는 사람이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말할 때 씁니다.

- 7 ‘길인데’, ‘앓았대’, ‘가져왔는데’가 바른 표기입니다.

단원 마무리 127쪽

- ① 미안한 ② 신난다 ③ 걱정
 ④ 뿌듯한 ⑤ 바라는 점

- 1 (1)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는 상황이다. 등
(2) 아픈 친구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등
- 2 ③ 3 ①
- 4 예 빨리 나아가야 해. 5 ②
- 6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발표했다.
- 7 (1) ○ (3) ○ 8 ①, ②
- 9 제비뽑기로 뽑기로 하였다. 10 ⑤
- 11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등 12 화장실 13 ⑤
- 14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 열심히 달리고 싶었을 것이다. 등
- 15 ⑤ 16 진아
- 17 예 네가 물통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림을 망쳐서 내가 많이 속상해.
- 18 예쁜 종이에 마음을 담아 손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
- 19 예 교실에서 모둠별 발표 때문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는데 내 말만 하고 가 버려서 친구에게 미안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말을 그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
- 20 ①

- 1 주변에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 중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봅시다.

채점 기준 (1)에는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이라는 내용을 쓰고, (2)에는 아픈 친구에게 병문안을 간 상황이라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 3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을 골라 봅시다.
- 4 아픈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이 어울립니다.
- 5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 6 규리는 사회 시간에 모둠의 대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7 규리는 발표를 하면서 실수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8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 행복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9 누구나 한 경기씩 나갈 수 있도록 제비뽑기로 선수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 10 친구들은 이어달리기가 가장 점수가 높는데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기찬이가 하게 되어 질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11 기찬이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데 점수가 큰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 12 이호는 배가 아파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신이 달릴 차례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 13 친구들은 기찬이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기찬이를 응원했습니다.
- 14 친구들이 갑자기 응원하는 것에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자신을 응원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 15 사과를 하고 있지만 사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정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사과하는 말을 할 때 주의할 점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장난스럽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 16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써야 합니다.
- 17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표현을 떠올려 봅시다.
- 18 10월 넷째 주에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이라는 이름으로 각 반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쁜 종이에 마음을 담아 손 편지를 써서 전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 19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좋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등 주위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서술형 평가

131쪽

- 1 예 전학을 가는 친구에게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다. /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잘 풀려서 짝에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 2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수호네 하얀 강아지를 만나 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등
- 3 예 이모가 맛있는 케이크를 사 가지고 놀러 오셔서 행복했다.
- 4 운동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등
- 5 속상하고 외로웠을 것이다. 등
- 6 장난처럼 말하듯이 쓰지 않는다. / 정성껏 바른 글씨로 진심을 담아서 써야 한다. 등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 본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을 알맞게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수호네 강아지를 만나 털을 쓰다듬어 준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네(수호네) 하얀 강아지를 만났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이 글에는 수호네 강아지를 만나 행복했던 글쓴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운동에 자신이 없으니 운동회가 기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운동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기찬이는 친구들이 자신을 놀려서 속상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속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씁니다.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중 한 가지 이상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핵심 확인 문제

134쪽

- 1 지식 2 ○
- 3 노랫말을 바꾸어 소개하기 4 까닭
- 5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준비

글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 나누기

135쪽

- 1 ④ 2 ①, ③ 3 ③
- 4 예 우주에 대한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 1 이 글에서 소개한 놀이는 첫 부분에 나와 있듯이 ‘앉아서 하는 피구’입니다.
- 2 이 글에서 소개한 ‘앉아서 하는 피구’ 놀이는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해야 하고, 교실 바닥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3 공을 튀기거나 던져서 맞으면 맞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혀야 맞은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글에서 소개한 놀이

놀이 이름	앉아서 하는 피구
준비할 내용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피구장을 만들고 학급 친구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눈다.
규칙	•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해야 한다. •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이라도 펴서 일어나는 자세가 되면 누구든 피구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 상대를 맞힐 때에는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혀야 한다. • 굴린 공이 벽에 닿으면, 수비하던 친구가 공을 잡아 공격할 기회를 얻는다.

- 4 글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떠올려 어떤 글을 소개했는지,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무슨 내용을 소개했는지 등을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읽은 글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41~143쪽

- 1 ⑤ 2 ④ 3 ①
 4 「산꼭대기에 열차가?」 5 아인슈타인
 6 예 산 밑에서 아주 큰 크레인으로 열차를 산꼭대기에 옮긴다. / 날개를 펼치면 비행기처럼 날 수 있는 열차이다.
 7 이 세상의 빛과 시간 8 ①, ⑤
 9 예 지금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상상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 내는 거라는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말이 인상 깊었다.
 10 (1) ③ (2) ① (3) ② 11 ㉠
 12 (1) 올게요 (2) 할게요 13 ⑤

- 1 번개가 치는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하고 검은 물체를 본 영롱이의 마음으로 반가움은 알맞지 않습니다.
 2 영롱이가 어젯밤에 본 것은 열차였습니다.
 3 영롱이가 만난 사람은 희끗한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헝클어지고 콧수염이 윗입술을 살짝 가린 아저씨였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4 빈칸에 이 책의 제목을 씁니다.
 5 이 책에 나온 탐정 사무소의 주인이자, 어떤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명탐정은 아인슈타인입니다.
 6 열차가 기차길 없이 산꼭대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여 씁니다.
 7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이 세상의 빛과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8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상상과 열정적인 호기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9 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씁니다.
 10 ①은 책을 읽게 된 까닭, ②는 책 내용, ③은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11 책을 읽은 뒤에 타악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은 ㉠입니다.
 12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ㄹ게’는 [계]로 소리 나더라도 ‘계’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13 ①은 ‘올게’, ②는 ‘먹을게요’, ③은 ‘칠게’, ④는 ‘얹을게요’로 고쳐 써야 합니다.

단원 마무리

144~145쪽

- ① 규칙 ② 까닭 ③ 느낌
 ④ 인상

단원 평가

146~148쪽

- 1 앉아서 하는 피구 2 ④, ⑤
 3 ② 4 ㉠ 5 ⑤
 6 빨간 단풍잎
 7 예 캐나다에 많이 자라는 설탕단풍 나무의 잎이 국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8 ① 9 전설 10 (3) ○
 11 ④ 12 ④ 13 ④
 14 ④
 15 태극기의 무늬가 조금씩 달랐다가 1949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정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등
 16 ⑤ 17 ①
 18 예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 가서 친구가 되어 주는 친구이다.
 19 (1) ㉡ (2) ㉢
 20 ㉢, ㉡, ㉠, ㉣

- 1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앉아서 하는 피구’입니다.
 2 이 글에서 놀이의 단점과 놀이의 다른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3 앉아서 하는 피구에서는 공을 굴려서 상대를 맞혀야 합니다.
 4 글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캐나다처럼 추운 날씨에는 설탕단풍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6 캐나다 사람들은 국기에 빨간 단풍잎을 그려 넣었다고 했습니다.
 7 캐나다 국기에는 캐나다에 많이 자라는 설탕단풍 나무의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채점 기준 캐나다에 많이 자라는 설탕단풍 나무의 잎이 그려져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핵심 확인 문제

152쪽

- 1 ○ 2 결과 3 차례
4 장소 5 주제

준비

시간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 읽기

153~156쪽

- 1 ③ 2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
3 ⑤ 4 ㉠ 5 ④
6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베짚이는 놀기만 했다.
7 ④ 8 ㉠, ㉡, ㉢, ㉣
9 ① 10 ③ 11 ③
12 지우 13 ③
14 (1) 3 (2) 2 (4) 4 (5) 5
15 (1) ㉠ 이야기 할아버지는 원래대로 커졌어요.
(2) 다음 날 밤
16 ㉠
- 베짚이

풀잎 위에 베를 놓고
별빛 뿜아 날을 날고
꽃빛 모아 씨를 삼아
베짚이가 베를 잔다.
베짚베짚 베짚베짚
밤새도록 쉬지 않고
베 짜느라 부산하다.

- 1 베짚이는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와 이야기를 쓰고 있으므로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2 할아버지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어서 작아진 것입니다.
3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베짚이는 흉악한 쥐들이 할아버지를 잡아먹을까 봐 서둘러 쥐를 찾아가려는 할아버지를 덥석 잡았습니다.
4 '그날 밤'이 직접 시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마당'은 장소를 나타내고, ㉡, ㉢, ㉣은 시간을 말하는 표현과 거리가 멉니다.

- 5 베짚이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짠 베를 주면서 베를 가지고 쥐를 찾아가서 마법 열매와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6 베짚이의 말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짚이는 게으른 곤충 취급을 당해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채점 기준 베짚이가 놀기만 하는 곤충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 때문에 게으른 곤충 취급을 당한 베짚이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보충 자료 「개미와 베짚이」 줄거리

「개미와 베짚이」는 이솝 우화 중 하나로, 한여름에도 개미는 쉬지 않고 일하고 베짚이는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만 부르며 놀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를 베짚이는 한심하게 생각했고, 개미는 베짚이에게 겨울이 되면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모아 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자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고, 음식을 모아 두지 않은 베짚이는 개미에게 찾아와 반성을 하고 개미에게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 8 마법 열매를 먹고 작아진 할아버지가 마법 열매를 구하기 위해 쥐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베짚이는 베를 짜서 쥐를 찾아가는 할아버지에게 드렸고, 할아버지는 베짚이의 부탁대로 베짚이를 위한 글을 써 주기로 하였습니다.
9 베짚이가 베를 짜서 할아버지에게 주어서 할아버지는 베짚이가 고마울 것입니다.
10 쥐들은 할아버지가 자기 크기만큼 작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11 할아버지와 쥐들이 서로 바꾼 것은 베짚이가 짠 베와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입니다.
12 '베짚이가 베를 다 짠 뒤'와 같은 말은 직접 시간이 들어가지 않지만 시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답 전해지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

'다음 날 밤', '오늘 낮'과 같이 직접 시간을 말하는 시간 표현 외에도 '수업 시작종이 친 뒤', '식사하기 전', '숙제를 마치자마자'와 같이 직접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 13 '다음 날 밤'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1 이 글은 주말여행을 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 2 '내'가 간 도시는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 3 '내'가 방문한 곳은 고인돌 박물관, 동림 저수지, 선운사입니다.
- 4 이 글은 여행한 장소 변화에 따라 쓴 글로, 장소 변화에 주의하며 간추려야 합니다.
- 5 '나'는 과학 관찰 보고서를 쓰기 위해 동물원에 갔습니다.
- 6 '내' 보고서의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 7 '내'가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입니다.
- 8 '나'는 곤충관에서 나비와 벌, 메뚜기, 톱사슴벌레를 봤습니다.
- 9 톱사슴벌레는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 낮에도 돌아다닙니다.
- 10 '나'는 야행관에서 본 수리부엉이가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11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입니다.
- 12 열대 조류관에서는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 등 다양한 앵무새들을 관찰하였고, 황새, 두루미, 고니를 관찰한 곳은 '큰물새장'입니다.
- 13 '곤충관 → 야행관 → 열대 조류관 → 큰물새장' 등 장소 변화에 따라 쓴 글입니다.

기본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려 쓰기

163~164쪽

- 1 ㉓ 2 ㉕
- 3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 4 ㉓
- 5 ㉔ 6 ㉑, ㉓
- 7 예 앞으로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8 (1) ○ 9 (1) 오후 한 시 (2) 중앙 광장

- 1 이 글은 직업 체험관을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 2 민기가 "집안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면 좋겠어."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소품 설계관을 첫 번째 체험학습 장소로 정했습니다.
- 3 '나'는 소품 설계관에서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 4 디자이너 체험을 끝내고 제빵 학원으로 간 시간은 열한 시입니다.
- 5 ㉑, ㉒, ㉓, ㉔에서는 장소 변화를 알 수 있고, ㉕에서는 시간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 6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7 직업 체험관을 다녀와서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점 기준 앞으로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우리 모듬'은 '소품 설계관 → 제빵 학원 → 중앙 광장 → 소방서'의 차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 9 열두 시에는 중앙 광장에서 점심을 먹었고, 오후 한 시에는 소방서에서 소방관 체험을 하였습니다.

실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 쓰기

165~166쪽

- | | | |
|------------|----------|---------------|
| 1 한지 | 2 ㉑ | 3 ㉔ |
| 4 시간 | 5 산막이 옛길 | |
| 6 사오랑, 산막이 | 7 ㉓ | 8 (1) × (2) ○ |

- 1 이 글에서 소개한 괴산의 특산물은 한지입니다.
- 2 이 글에서는 한지를 만드는 방법을 일 차례대로 설명하였습니다.
- 3 괴산 지역이 지금의 이름인 '괴산'으로 불리게 된 때는 조선 태종 때부터입니다.
- 4 괴산 지역 지명 변화를 시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 5 이 글은 괴산의 산막이 옛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6 산막이 옛길은 사오랑 마을에서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 7 4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 소나무 동산에서
괴산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 8 이 글은 산막이 옛길에 대해 장소 변화대로 설명하였
습니다.

국어 활동

167~169쪽

- 1 ㉠ 2 (1) 두 번째 (2) 세 번째
3 ㉡ 4 ㉢, ㉡, ㉠, ㉢
5 쿠리치바(시) 6 ㉡ 7 이튿날 아침
8 쿠리치바 시청 9 예술적 재활용
10 (1) ㉡ (2) ㉢ (3) ㉠ 11 ㉢

- 1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2 차례를 나타내는 말 중 ㉠에는 두 번째, ㉡에는 세 번째가 알맞은 말입니다.
- 3 이 글에서는 소화기 사용 방법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제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4 차례를 나타내는 말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끝으로’의 차례대로 글을 정리합니다.
- 5 환이와 아빠가 있는 도시는 쿠리치바시입니다.
- 6 ‘꽃의 거리’와 ‘레드웨이’의 공통점은 보행자를 위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 7 이튿날 아침, 환이는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 ‘꽃의 거리’로 갔습니다.
- 8 환이가 이동한 장소는 ‘자전거 전용 도로 → 꽃의 거리 → 쿠리치바 시청’입니다.
- 9 쿠리치바는 예술적 재활용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도시입니다.
- 10 꽃의 거리에서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걸었고, 시청에서는 혼자서 시청 청사를 구경했으며, 시청 앞 거리에서는 아름다운 벽화를 구경했습니다.
- 11 쿠리치바에 대한 내용을 글의 내용과 비교하며 알맞은 것을 찾아봅니다.

단원 마무리

170~171쪽

- 1 시간 2 먼저 3 야행관
4 소품

진도
교재

단원 평가

172~174쪽

- 1 ㉢
2 할아버지가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등
3 다음 날 밤 4 ㉢
5 첫 번째, 두 번째
6 쉽다 등 7 ㉠ 8 ㉠
9 (1) 토요일 아침 (2) 고인돌 박물관
10 ㉢ 11 야행관 12 ㉡
13 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 14 ㉢
15 ㉢ 16 (1) ㉡, ㉡ (2) ㉠, ㉠
17 괴산 18 ㉢ 19 ㉡
20 (1) 괴양군 (2) 조선

- 1 할아버지는 쥐들에게 베를 주고, 마법 열매를 받았습
니다.
- 2 할아버지가 마법 열매를 먹은 뒤, 원래 크기로 돌아
왔습니다.

채점 기준 할아버지가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빈칸에 알맞은 시간을 나
타내는 말은 ‘다음 날 밤’입니다.
- 4 실 팔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로 다른
색깔 실 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짓기’입니다.
- 5 이 글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입니다.
- 6 ‘간단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쉽다’입니다.
- 7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
- 8 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인 ㉠입니다.
- 9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아침’이고, 장소
는 ‘고인돌 박물관’입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주말여
행을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10 ‘맨 처음’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가장 먼저’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며 읽습니다.

11 ‘야행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야행관을 관찰하고 쓴 글입니다.

보충 자료 이 글의 내용 정리하기

장소	야행관
관찰한 것	수리부엉이는 몸 길이가 70센티미터인 큰 새이다. 눈이 붉고 목이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멸종 위기의 동물이다.

12 수리부엉이는 붉은 눈을 가졌습시다.

13 ‘나’는 멸종 위기 동물인 수리부엉이를 관찰한 뒤,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봅시다.

채점 기준 자연을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4 병주가 가장 기대하던 소방관 체험에서는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습시다.

15 글쓴이의 모둠에서 소방관 체험을 마친 시간이 두 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글쓴이는 두 시 반까지 버스에 타기로 선생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체험활동을 끝냈습시다.

16 오후 한 시에는 소방서에서 소방관 체험을 하였고, 오후 두 시 반에는 체험활동을 끝내고 버스에 탔습시다.

17 이 글에서는 ‘괴산’ 지역의 지명 변화를 시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 이 글은 괴산 지역 지명 변화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괴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입니다.

19 이 글에서는 괴산 지역 지명에 대하여 시간 차례에 따른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20 괴산 지역의 이름은 ‘영근내군 → 괴양군 → 괴주군 → 괴산군’으로 변해 왔습시다.

채점 기준 (1)에 ‘괴양군’, (2)에 ‘조선’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서술형 평가

175쪽

1 일 차례에 주의하며 간추렸다. 등

2 (1) 고인들의 역사를 알았다. 등

(2)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했다. 등

3 예 은행에서 예금한 돈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알고 싶다. /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되어 뉴스를 전하고 싶다.

4 시간 차례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등

5 (1) 예 상주의 특산물, 곶감

(2) 예 인터넷 찾아보기

(3) 예 •상주 곶감은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

•곶감 생산 과정

①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 따기

② 껍질 벗기기

③ 꼭지 매달기

④ 50일 정도 건조시키기

⑤ 포장하기

(4) 예 곶감 생산 과정을 일의 차례대로 설명하기

1 일 차례에 주의하며 간추렸습니다.

채점 기준 일 차례에 주의하며 간추렸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장소에 따라 각각의 장소에서 겪은 일을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1)에 고인들의 역사를 알았다는 내용을, (2)에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3 직업 체험관에서 자신이 견학하고 싶은 장소와 하고 싶은 활동을 씁시다.

채점 기준 직업 체험관을 고르고 그 직업 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4 괴산 지역 이름이 시간에 따라 변해 온 것으로 보아, 시간 차례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시간 차례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5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정하여 조사한 뒤, 적절한 설명 방법을 정하여 소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채점 기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소개할 내용을 각각의 방법에 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핵심 확인 문제

178쪽

- | | |
|---------------|---------|
| 1 (인물의) 말, 행동 | 2 (2) ○ |
| 3 실감 | 4 (1) ○ |
| | 5 예의 |

준비 글을 읽고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179~182쪽

- | | |
|---------------------------|----------------|
| 1 코로로 언덕의 굴속 | 2 ④ |
| 3 ③ | 4 ④ |
| 5 ⑤ | 6 ④, ⑤ |
| 7 ④, ⑤ | 8 ① |
| 9 ② | 10 (1) ① (2) ② |
| 11 (1) 언덕 (2) 물속 | 12 ④ |
| 13 투루와 쿠부가 줄다리기를 하게 한다. 등 | |
| 14 (2) ○ (3) ○ | |
| 15 ④ | 16 ④ |
| | 17 지용 |

- 무툴라는 코로로 언덕의 굴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투루는 코끼리입니다.
- 투루는 무툴라의 인사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무툴라의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투루는 잘난 체하는 성격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투루의 말과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

말과 행동	투루의 성격
무툴라가 한 인사를 듣고 대답을 하지 않는 행동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감히 아침 식사 하는 나를 귀찮게 해?”	잘난 체한다.

- 투루의 거만한 성격이 잘 드러나게 말하려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소리로 거들먹거리는 것이 어울립니다.
- 무툴라가 쿠부를 찾아갔을 때 쿠부는 눈을 반쯤 감고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 자신보다 훨씬 몸집이 큰 쿠부에게 ㉠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무툴라는 용기가 있고 자신감 있는 성격입니다.
- ㉡은 쿠부가 무툴라의 말에 잘난 체하며 한 말임으로, 가소롭다는 뜻이 비웃는 말투가 어울립니다.
- 무툴라는 자신을 무시하는 투루와 쿠부에게 줄다리기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날 내내 줄다리기에 필요한 길고 튼튼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 ㉢은 해가 뜨기 전을 나타내고, ㉣은 해가 뜨기 시작할 때를 나타냅니다.
- 코끼리 투루는 언덕에 있고, 하마 쿠부는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무툴라는 줄을 당길 준비가 되면 “휘이이이익!” 하고 휘파람을 불겠다고 했습니다.

보충 자료 무툴라의 말을 읽는 방법 ㉤

무툴라의 말	“당길 준비가 되면 이렇게 휘파람을 불게. 휘이이이익!”
읽는 방법	투루와 쿠부를 골탕 먹으려는 것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읽는다.

- 무툴라는 투루와 쿠부에게 각각 밧줄의 한쪽 끝을 주고 자신은 덤불숲에 숨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두 동물끼리 힘을 겨루게 만들어 골탕 먹으려는 계획입니다.
- 밧줄의 한쪽 끝은 코끼리 투루가 잡고 있고, 다른 한쪽 끝은 하마 쿠부가 잡고 있습니다.
- 투루와 쿠부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동시에 포기하고 밧줄을 놓았습니다.
- 무툴라는 투루와 쿠부를 골탕 먹여서 신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 무툴라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해가 질 때까지 줄다리기를 한 투루와 쿠부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행동으로 성격 알아보기

	행동	성격
무툴라	덤불숲에 숨어 투루와 쿠부가 줄다리기를 하게 만든 행동	→ 꾀가 많다.
투루와 쿠부	해가 질 때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행동	→ 어리석다.

진도
교재

기분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극본을 소리 내어 읽기 183~185쪽

1 ② 2 ② 3 ②

4 ② 5 ④

6 (1) 예 크고 당당한 말투

(2) 예 당황하고 두려운 말투

7 나그네를 잡아먹지 않겠다. 등

8 예 나그네는 남을 걱정하고 잘 돕는 성격이다. /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 다른 사람을 잘 믿는다.

9 예 호랑이를 구해 준 것이 후회스럽고, 말을 바꾸는 호랑이가 미웠을 것이다.

10 ⑤ 11 (1) ○

12 (1) 소나무 (2) 길

- 1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산속'입니다.
- 2 이 글의 등장인물은 '호랑이, 사냥꾼 1, 사냥꾼 2, 나그네, 소나무, 길, 토끼'입니다.
- 3 호랑이는 사냥꾼들에게 잡혀 꾀짝에 갇혀 있습니다.
- 4 사냥꾼들은 목이 말라서 샘을 찾기 위해 호랑이를 두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 5 호랑이는 꾀짝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바닥에 꾸그리고 앉았으므로 포기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 6 호랑이와 나그네의 성격에 알맞은 말투를 상상하여 각각 어떻게 바뀌었을지 씁니다.

보충 자료 상황에 따른 호랑이의 말투 변화

상황	말투
꾀짝에 갇혀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부르는 상황	빠르고 급한 말투
↓	
나그네에게 구해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	간절한 말투
↓	
꾀짝 밖으로 나와서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크고 당당한 말투

- 7 나그네는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꾀짝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 8 호랑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꾀짝 문을 열어 주는 행동에서 나그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 9 호랑이를 구해 주었는데 보답을 받기는커녕 잡아먹히게 된 나그네의 기분을 짐작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나그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나그네는 소나무가 자신이 옳다는 대답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 11 소나무는 호랑이가 옳다고 했으므로 ①은 호랑이가 기세등등하여 뻔뻔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 12 호랑이와 나그네 중 누가 옳은지 소나무와 길에게 물었고, 둘 모두 호랑이가 옳다고 했습니다.

기분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극본 읽기 186쪽

1 ③

2 토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이다. 등

3 ②

4 ②

- 1 토끼가 계속 나그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호랑이는 답답해했습니다.
- 2 호랑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토끼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발로 꾀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 3 피를 내어 호랑이를 꾀짝에 스스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보아 토끼는 피가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충 자료 다음 상황에서 토끼의 마음과 성격 짐작하기

상황	호랑이가 다시 꾀짝 속으로 들어간 뒤 토끼가 문고리를 재빨리 잠그는 상황
마음	• 자신의 피로 호랑이를 벌주어 통쾌할 것이다. • 호랑이가 꾀짝에서 다시 나오면 자신도 잡아먹힐 수 있으니 행동을 빨리해야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성격	지혜롭고 피가 많다.

- 4 주어진 상황도 중요하지만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187쪽

1 ㉔ 2 주형, 지민
3 ㉒, ㉓, ㉔ 4 ㉔ 5 ㉔, ㉓, ㉔

- 1 이 장면은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궤짝에 넣어 두고 자리를 비우는 장면으로, 호랑이와 사냥꾼들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품과 궤짝처럼 보이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 2 연극에 필요한 소품은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거나 평소 사용하는 물건 또는 재활용품으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3 모두 친구들과 연극을 준비할 때, 공연할 장면과 소품을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한 뒤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인물에 대해 생각합니다.
- 4 연극 발표회를 준비할 때 무대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에는 소품을 둘 곳, 인물이 설 곳, 인물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곳 등이 있습니다.
- 5 밑줄 그은 나그네의 말에는 속상한 표정, 억울한 말투, 답답해지는 몸짓이 어울립니다.

188쪽

1 ①
2 예 연극을 볼 때 예절을 지키며 진지한 자세로 보아야 무대에서 연극하는 친구들이 힘이 날 것이다.
3 ④ 4 정아
5 (1) ㉠ (2) ㉡ (3) ㉢

- 1 친구들의 발표를 볼 때에는 진지한 자세로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 2 연극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연극을 보는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예절을 지키며 연극을 관람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무대에서 연극하는 친구들이 힘이 날 것이라
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인물의 대사는 무조건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말해야 합니다.
- 4** 자신이 맡은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해야 합니다.

- 5** 연극을 준비할 때에는 맡은 인물의 성격과 친구의 반응을 생각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습합니다. 연극 발표회를 할 때에는 진지한 자세로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발표합니다. 연극을 관람할 때에는 예의를 지키며 봅니다.

189~191쪽

1 바가지 2 ① 3 ④
4 예 인정이 많다. /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
5 눈 6 ① 7 (2) ○
8 ②
9 예 눈을 타이르듯이 차분한 말투로 말한다.
10 (1) 일어나려고 (2) 챙기려고
11 (1) 먹으려고 (2) 가려고

- 1 개구리는 농부에게 바가지를 주었습니다.
- 2 극본에서 () 안의 내용을 보면 말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 농부가 쌀 대신 바가지를 가져와서 농부의 아내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 4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것으로 보아, 농부의 아내는 인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성격입니다.
- 5 ‘눈’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 모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 6 홍당무는 먼 곳에 살고 있는 토끼들에게 가야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7 ㉠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몸짓이 어울립니다.
- 8 화가 나서 마구 소리치는 표정이 어울립니다.

오답 피하기 인물의 말에 알맞은 표정

인물의 말	인물의 표정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 세상이 훨씬 예뻐져!”	



- 9 ㉔에서 달은 눈을 타이르듯이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 10 어떤 행동을 할 목적을 드러낼 때는 ‘-(으)려고’가 바른 표기이므로, (1) ‘일어나려고’, (2) ‘챙기려고’로 고쳐 씁니다.
- 11 (1) ‘먹으려고’, (2) ‘가려고’가 바른 표기입니다.

단원 마무리

192~193쪽

- | | | |
|-------|--------|------|
| ① 용기 | ② 어리석다 | ③ 크고 |
| ④ 당황한 | ⑤ 화 | ⑥ 피 |
| ⑦ 재빨리 | ⑧ 역할 | ⑨ 성격 |

단원 평가

194~196쪽

- 1 ① 2 ③ 3 무툴라
- 4 ①, ④ 5 (3) ○ 6 ②
- 7 나그네를 잡아먹지 않겠다. 등
- 8 예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당당한 것으로 보아 호랑이는 뻔뻔한 성격이다.
- 9 ④, ⑤ 10 ③, ④
- 11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등
- 12 개구리 13 ③ 14 ⑤
- 15 나그네 16 답답하다. 등 17 ⑤
- 18 (1) 예 이제야 알았습니다.
(2) 예 기쁜 말투로 웃으면서
- 19 공연할 장면을 정한다. 등
- 20 (1) ○ (3) ○

- 1 무툴라는 투루와 쿠부에게 “안녕.” 하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 2 무툴라는 투루와 쿠부에게 줄다리기를 하면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 3 용기가 있고 자신만만한 성격을 가진 인물은 무툴라입니다.

- 4 투루와 쿠부는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 5 ㉔은 자신감 넘치게 표현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 6 쿠부는 아침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툴라에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 7 문을 열어 주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는 나그네에게 호랑이가 한 말을 살펴봅니다.
- 8 자신을 구해 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당당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호랑이의 성격을 씁니다.

채점 기준 호랑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알맞게 파악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호랑이와 소나무는 모두 호랑이가 옳다고 했습니다.
- 10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나그네는 호랑이가 밋고 호랑이를 구해 준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 11 호랑이의 성격을 생각하며 ㉔에 알맞은 호랑이의 말투를 상상해 봅니다.
- 12 농부는 개구리가 불쌍해서 쌀과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 13 농부는 쌀을 가져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일 것이므로 미안한 표정이 알맞습니다.
- 14 호랑이는 토끼가 계속 나그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답답해했습니다.
- 15 토끼는 나그네가 옳다고 생각하여 피를 내어 나그네를 도와주었습니다.
- 16 ㉔을 통해 호랑이가 답답해하고 있으며 화를 잘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7 호랑이가 귀쪽에 들어가자 토끼가 재빨리 문을 잠그는 상황이므로 재빨리 자물쇠를 잠그는 듯한 몸짓이 어울립니다.
- 18 글에서 일부분을 골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하고 주변에서 인물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어떤 표정, 몸짓, 말투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1)에 글에서 찾은 부분을, (2)에 (1)에서 찾은 부분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9 연극 발표회를 할 때 가장 먼저 공연할 장면을 정합니다.
- 20 연극 발표회를 할 때 평소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발표해야 합니다.

시술형 평가

197쪽

- 1 예) 잘난 체한다.
- 2 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목소리로 거들먹거리며 읽는다.
- 3 꺾작의 문고리를 따고 문짜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등
- 4 예) 간절한 말투
- 5 꺾작, 동물 의상 등
- 6 예) 발표를 끝낸 친구에게 박수를 보낸다. /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집중해서 본다.
- 1 투루의 말과 행동을 살펴봅니다.
- 채점 기준 투루의 성격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투루의 말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 채점 기준 잘난 체하는 투루의 성격에 알맞게 읽는 방법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꺾작에 갇힌 호랑이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문짜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점 기준 꺾작의 문고리를 따고 문짜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살려 달라고 사정하고 있으므로 간절한 말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①의 말에 어울리는 말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호랑이가 꺾작에 갇혀 있으므로 꺾작과 동물 의상 등이 필요합니다.

채점 기준 극본의 내용에 알맞은 소품을 두 가지 이상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에 연습하지 않고 발표를 끝낸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중해서 봅니다.

채점 기준 연극을 볼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두 가지 이상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기뻐하는 장면이니 활짝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어울립니다.
- 9 여자아이는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표정, 몸짓, 말투가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 10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말하고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술형 평가

6쪽

- 1 예 활짝 웃으면서 “고마워.”라고 말한다.
- 2 예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면서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 3 만화 영화의 즐거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등
- 4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등
- 5 예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표정,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몸짓, 행복하고 기쁜 말투로

- 1 문을 잡아 주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 그때 어울리는 표정은 무엇인지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그림을 보고 여자아이의 상황에 알맞은 말과 표정을 쓴 경우	6점

- 2 친구들과 인사 하는 장면에서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장금이의 말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모두 알맞게 쓴 경우	6점
장금이의 말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일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 3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보면 즐거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보면 좋은 점을 두 가지 모두 알맞게 쓴 경우	6점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만화 영화를 보면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 4 부벨라는 지렁이가 친구가 되어 준다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부벨라가 한 말을 바탕으로 쓴 경우	6점

- 5 지렁이는 맛있는 진흙파이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지렁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지렁이의 말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쓴 경우	6점
지렁이의 표정, 몸짓, 말투를 썼으나 일부만 맞게 쓴 경우	3점

평가
교재

수행 평가

7쪽

- 1 예 장금이의 강아지 때문에 국수를 쏟아 수라간에서 온 사람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
- 2 예 죄송할 것이다. / 속상할 것이다.
- 3 (1) 예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2) 예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며
(3) 예 낮고 작은 목소리로

- 1 장금이의 강아지 때문에 국수를 쏟아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만화의 장면을 보고 장금이가 처한 상황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장금이가 처한 상황을 썼으나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경우	5점

- 2 장금이의 표정, 몸짓, 말을 통해 장금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장면 ㉔에 어울리는 장금이의 마음을 쓴 경우	10점

- 3 죄송한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3)에 모두 알맞은 답을 쓴 경우	10점
(1)~(3) 중 두 가지만 알맞은 답을 쓴 경우	5점
(1)~(3) 중 한 가지만 알맞은 답을 쓴 경우	2점

2. 중심 생각을 찾아요

단원 평가 1회

8~9쪽

- 1 줄넘기 2 ㉔
3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과학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등
4 ㉕ 5 ㉓ 6 ㉑
7 (1)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등
(2)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벌니다. 등
8 ㉖ 9 무더위 10 ㉑

- 1 줄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2 줄넘기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아이들도 합니다. 줄넘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래된 놀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 과학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4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실험 기구나 화학 약품을 다루어야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복숭아는 쉽게 짓물러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어서 설탕을 넣고 줄여서 통조림이나 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 6 어민들이 갯벌에서 양식을 하는 것이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서 농작물을 키워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 7 각 문단에서 문단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습니다.

채점 기준 문단 ①과 ②의 중심 문장을 모두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을 보충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

- 8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습니다.
- 9 여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에 대해 알아봅니다.

- 10 ‘덥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춥다’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반대말

서로 정반대되는 뜻을 담고 있는 한 쌍의 낱말

단원 평가 2회

10~11쪽

- 1 닭 2 진수 3 ㉔
4 예 실험실에서는 실험 기구를 조심해서 다룬다.
5 ㉑
6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등
7 ㉕ 8 다르다 9 ㉔
10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차림이 달랐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이나 유행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등

- 1 ‘닭싸움’이라는 이름은 닭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 2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읽으면 그 모습을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아는 내용이나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좋은 점

- 내용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 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 3 과학실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4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롭게 안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자신만의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앞으로 자신이 지킬 과학 실험 안전 수칙을 글의 내용과 어울리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이 글에서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은 ㉑입니다.
- 6 소중한 갯벌을 보존하자는 것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보충 자료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립니다.
-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합니다.
-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습니다.



7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을 ‘진눈깨비’라고 합니다.

보충 자료 토박이말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더해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른 말로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합니다.

8 ‘같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다르다’입니다.

9 ‘퍼다’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점다’입니다.

10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서술형 평가

12쪽

- 예 지난번 체육 시간에 번갈아 뛰기, 뒤로 뛰기 줄넘기를 했다.
- 예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
- 예 갯벌을 보존해야 할 까닭을 강조하기 위해 쓴 글이다.
- 예 여름은 너무 더웠다. 겨울은 너무 추웠다. / 나와 언니는 성별이 같다. 나와 언니는 성격이 다르다.
- 예 옛날에는 자연에서 얻은 실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1 줄넘기를 해 본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줄넘기한 경험을 쓴 경우	5점

2 글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이 무엇인지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새롭게 안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5점

3 첫 번째 문장이 문단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중심 문장을 알맞게 정리하여 쓴 경우	5점

4 갯벌을 보존하자는 내용을 전하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쓴 경우	5점

5 보기 에서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같다 ↔ 다르다’, ‘덥다 ↔ 춥다’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보기 에서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을 골라 문장을 알맞게 만든 경우	5점
보기 에서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을 골라 문장을 만들어 썼으나 낱말의 뜻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지 못한 경우	2점

6 중심 문장을 생각하며 간추려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문단의 내용을 알맞게 간추려 쓴 경우	5점

평가
교재

수행 평가

13쪽

- 갯벌 속에 사는 작은 생물이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한다. 등
- (1)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등
(2)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
- 예 갯벌이 주는 좋은 점을 알고 갯벌을 잘 보존해야 한다. /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알고 소중한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

1 갯벌은 겉으로는 그냥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작은 생물이 살고, 이 생물들은 오염 물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돕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에서 갯벌이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지 찾아 정리하여 쓴 경우	10점

2 문단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각각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문단 ①과 ②의 중심 문장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10점
문단 ①과 ②의 중심 문장을 하나만 알맞게 쓴 경우	5점

3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리거나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을 쓴 글인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쓴 경우	10점
글의 중심 생각을 정리하여 썼으나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경우	5점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단원 평가 1회

14~15쪽

- 1 (1) 예 가족과 놀이 공원에 놀러 간 일
(2) 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다.
2 ⑤ 3 ① 4 ③, ⑤
5 (1)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네.
(2) 주혁이가 눈물이 그렇그런한 얼굴로 말했다.
6 ③ 7 ③ 8 (1) ○ (3) ○
9 (1) ① (2) ④ 10 ②

- 1 자신이 겪은 일을 여러 가지로 떠올려 보고, 그 중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일을 고른 까닭을 씁니다.
- 2 자신이 겪은 일과 친구가 겪은 일을 비교하기 위해 기억에 남는 일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나’는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썼습니다.
- 4 동생이 아픈 것은 평소에 자주 겪는 일이 아니고,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골라 글로 쓴 것입니다.
- 5 (1)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씁니다. (2)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씁니다.
- 6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씁니다.
- 7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을 써야 합니다.
- 8 (2)는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정리할 때 점검할 일입니다.
- 9 (1)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물 좀 줘.’가 알맞습니다. (2)는 해가 진 뒤의 밤이 아닌 ‘밤나무’를 심자는 상황이므로 ‘오늘 밤나무를 심자.’가 알맞습니다.

오답 피하기

- ② 채소인 ‘나물’을 달라는 뜻이 됩니다.
③ 여자아이가 상상하는 ‘밤나무’가 아닌 해가 저서 캄캄한 밤에 나무를 심자는 뜻이 됩니다.

- 10 우리 반 소식지는 반 친구들이 만들고 보는 것이므로 어려운 표현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알맞습니다.

단원 평가 2회

16~17쪽

- 1 예 말할 내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2 (1) 어디 (2) 일 (3) 생각 3 ㉔
4 ③
5 (1) 쉼표(.) 뒤에 오는 말을 붙여 썼다. 등
(2) •㉠: “아이고, 배야.” / •㉡: “누나, 나 아파.”
6 ② 7 영미, 해주 8 ⑤
9 ① 10 ①, ⑤

- 1 이밖에도 말할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2 경험한 일로 글을 쓸 때에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 3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쓴다면 동생이 아파한 과정보다는 그때 들었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 4 ‘나’는 아픈 동생이 걱정되어 마음이 아팠고, 동생이 빨리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5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씁니다.

채점 기준 쉼표(.) 뒤에 오는 말을 붙여 쓴 것이 잘못이고, ㉠, ㉡에서 각각 쉼표(.) 뒤에 오는 말을 띄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씁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하늘이√맑고√푸르다.
③ 책을√읽으면√지식이√쌓인다.
④ 우정은√예쁘게√가꿀수록√좋다.
⑤ 나는√한√가지√아이스크림을√곬랐다.

- 7 제목은 글에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 8 이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9 글을 무조건 길게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 10 우리 반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므로 반 친구들과 함께 경험한 일을 써야 합니다.

시술형 평가

18쪽

- 1 예 친구와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일
- 2 예 동생 주혁이가 아팠다.
- 3 예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쓰기 때문이다.
- 4 예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다. / 글을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 5 예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올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쓴다.

- 1 하루 동안 겪은 일 가운데에서 인상적인 일을 골라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일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2 '나'는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동생이 아팠던 일을 골라 이 글을 썼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동생이 아팠다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 3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쓰므로, '두 번째'와 같이 띄어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두 번째'라고 띄어 쓰는 까닭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4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고,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띄어쓰기를 바르게 했을 때의 좋은 점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5 이 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직접 따 본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와 같은 내용을 넣어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인상 깊은 일로 쓴 글을 점검하는 기준을 떠올려 내용과 표현 면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 알맞게 쓴 경우	6점

보충 자료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쓸 때 확인할 점

- 경험한 일을 자세히 썼는지 확인합니다.
- 띄어쓰기를 바르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수행 평가

19쪽

- 1 (1) 예 지난 여름 방학 때 (2) 예 한라산에서 (3) 예 가족들과 (4) 예 한라산 정상까지 등산을 했다. (5) 예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6) 예 힘든 일을 참고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뿌듯했다.

2 예시 답안 참고

- 1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인상 깊은 일을 떠올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표에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6)의 내용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10점

- 2 문제 1번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씁니다.

예시 답안 예 걸어서 한라산 정상까지

지난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이번 여행은 온 가족이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목표였다. 어머니께서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높은 산을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렇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어서 용기를 냈다.

산에 오르는 날 아침, 우리는 가방에 물과 간단한 음식을 챙긴 뒤 숙소에서 나왔다. 한라산 입구에 도착하여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산길이 많이 가파르지 않아서 걷기가 괜찮았다. 힘들면 쉬어 가고, 힘이 나면 열심히 걸어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정상을 향해 힘을 내어 걸어갔다.

드디어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에 도착했다. 커다란 화산 분화구가 신기하고도 아름다웠다. 우리 가족은 백록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쉬었다. 이렇게 높은 산을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올랐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힘든 일도 참고 견디면 꼭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한라산 등반은 나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

채점 기준	점수
문제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도 있게 한 편의 글을 쓴 경우	20점

평가
교재



4. 감동을 나타내요

단원 평가 1회

20~21쪽

- 1 ④ 2 ② 3 모양
4 예 팩 토라져 고개를 돌린 앵두나무의 모습이 떠
오른다. / 따끔따끔한 가시를 만지는 느낌이 든다.
5 ⑤ 6 투명 인간 7 ⑤
8 ⑤
9 예 투명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저씨에게
는 에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0 예 쌍쌍 / 쌍쌍

- 사과의 모양이나 맛,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을 떠올렸을 때 ‘꼬불꼬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 감기약을 먹고 몸이 무거워진 것을 거북이가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 ‘느릿느릿’은 동작이 빠르지 못하고 매우 느린 모양을, ‘까무룩’은 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 감각적 표현을 생각하며 노랫말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씁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발가락이 모래밭을 파고들어서 모래가 움직인 것을 지구가 움직여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에밀은 투명 인간 책을 읽으며 투명 인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피아노 음이 맞지 않자 피아노 조율사인 블링크 아저씨가 에밀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 아저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대신 다른 감각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에밀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눈이 보이지 않는 아저씨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 인간과도 같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아저씨에게 에밀이 투명 인간과 같은 이유를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자전거가 달리는 모습을 어떤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단원 평가 2회

22~23쪽

- 1 (1) ○ 2 ④ 3 물바가지, 낮
4 ③
5 발가락 움지락거려 /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 등
6 ①, ④
7 이야기 속 인물을 한 명 정하여 편지를 쓴다. 등
8 ⑤ 9 블링크 아저씨
10 하늘 나라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 등

- 제시된 감각적 표현은 꿈 인형을 표현하기에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오답 피하기

- (2) ‘사과’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에는 ‘동글동글, 와삭, 아삭아삭’ 등이 있습니다.
(3) ‘굴’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에는 ‘말랑말랑, 새콤달콤’ 등이 있습니다.

- 감기에 걸려 몸이 떨리는 것을 ‘몹시 추운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 초승달은 꼬부랑 할머니 물바가지와 풀 베는 아저씨 낮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강가 고운 모래밭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 이밖에 지구가 굼질굼질 움직인다고 한 것도 감각적 표현입니다.
- ‘나’와 아저씨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색깔과 그에 대한 느낌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놀이를 했습니다.
- 이밖에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 표지나 인물 책갈피 만들기, 노랫말로 감동 표현하기, 이야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을 네 컷 만화로 그리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에밀은 블링크 아저씨를 위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피아노 실력이 늘었습니다.
- ‘내’가 본, 얼굴을 봉대로 칭칭 감은 투명 인간은 블링크 아저씨였습니다.
- 천둥소리를 하늘에 사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채점 기준 하늘에 사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라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시술형 평가

24쪽

- 1 예 공처럼 둥그스름한 굴 / 맛이 새콤달콤한 굴
- 2 느릿느릿, / 거북이도 들어오고
- 3 예 넣고 읽을 때 더 재미있고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 4 예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 드리려고
- 5 예 한여름 바다에서 물장구치는 소리 / 차가운 눈을 만졌을 때의 느낌
- 6 예 고슴도치처럼 따가운 밤송이

- 1 굴의 모양, 색깔, 맛, 냄새 등을 떠올리고 감각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굴을 떠올린 느낌을 감각적 표현을 넣어 알맞게 쓴 경우	5점

-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감기약을 먹고 몸이 무거워진 상태를 ‘(내 몸에) 거북이가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느릿느릿, / 거북이도 들어오고’ 부분을 찾아 바르게 쓴 경우	5점

- 3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시가 더 재미있고, 생생한 느낌이 듭니다.

채점 기준	점수
감각적 표현을 넣고 읽을 때 더 재미있고 생생한 느낌이 든다고 쓴 경우	5점

- 4 ‘나’는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 드리려고 색깔을 떠올리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설명해 주려고 / 가르쳐 주려고’와 같이 쓴 경우	5점

- 5 색깔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맛이나 피부의 느낌, 냄새, 소리 등을 떠올려 보고 이를 감각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푸른색을 떠올리고 그 느낌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넣어 쓴 경우	5점

- 6 밤송이에 대한 느낌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어울리는 대상에는 ‘고슴도치, 바늘’ 등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밤송이와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따위에서 닮은 대상을 찾아 빗대어 표현한 경우	5점

수행 평가

25쪽

- 1 예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추운 상태이다. / 감기약을 먹어서 잠이 오고 몸이 무거운 상태이다.
- 2 (1) 예 ‘느릿느릿, / 거북이도 들어오고 / 까무룩, /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2) 예 감기약을 먹고 난 뒤에 몸이 무거워진 느낌과 잠이 오는 상태를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3 예 ‘불덩이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열이 나는 몸 상태를 재미있게 나타내 준다. / ‘까무룩’이라는 표현이 감기약을 먹고 졸린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 / 감기에 걸려 추운 상태를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것이 창의적이다.

-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추운 가운데, 감기약을 먹어서 잠이 오고 몸이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말하는 이가 감기에 걸려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쓴 경우	10점

보충 자료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한 까닭

감기에 걸려 열이 많이 나는 상태를 불덩이가 들어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 몸에 / 불덩이가 들어왔다.”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감기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 2 ㉠ 부분은 감기약을 먹은 뒤의 몸 상태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 부분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 바르게 쓰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하여 쓴 경우	10점
㉠ 부분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 바르게 썼으나,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 다소 부족하게 쓴 경우	5점

- 3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시에 사용된 감각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맞게 쓴 경우	10점
시에 사용된 감각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알맞게 썼으나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은 경우	5점

평가
교재

5. 바르게 대화해요

단원 평가 1회

26~27쪽

- 1 (1) ② (2) ① 2 ④
 3 드시고 계세요 4 ⑤
 5 ㉠, ㉡, ㉢
 6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데 남
 자아이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등
 7 ㉡ 8 ① 9 ④
 10 ⑤

1. 진수는 대화 ㉡에서 엄마께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고 있고, 대화 ㉣에서는 가위를 빌려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의 기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3.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웃어른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4. 전화를 건 지원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지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 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6. 그림은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7. 대화 ㉡는 대화 상대가 할머니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대화 ㉣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힌 다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8. 훈이가 유치원생 같다고 놀렸기 때문에 강이는 속상한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립니다.
9. 운전자 아저씨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것은 사고가 날 뻔하여 깜짝 놀란 상황에서 훈이가 할 수 있는 몸짓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10. 전화 대화 상황에서는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28~29쪽

- 1 수정이가 준비물만 알려 준 뒤에 진수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이다. 등
 2 ① 3 (1) ② (2) ①
 4 네. 책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등
 5 구체적 6 ⑤ 7 ③
 8 ④ 9 (1) ○ 10 ㉣

1. 그림에서 수정이는 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채점 기준 수정이가 진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2. 대화 상대가 친구인 경우와 선생님인 경우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어도 다른 형태로 말해야 합니다.
3. 대화 ㉡에서는 친구와 승민이가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 ㉣에서는 선생님과 승민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 선생님께 말하는 상황이므로 높임 표현을 써서 말해야 합니다.
5. 지원이는 물통을 들고 말하고 있지만 민지는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가 말하는 미술 준비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민지가 지원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까닭 지원이는 물통을 들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술 준비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화 대화에서는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지가 지원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6. 할머니께서는 세 시까지 공항에 데리러 오라는 말해야 하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 버려서 당황하셨습니다.
7. 전화로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야 합니다.
8. 친구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다급한 상황이므로 타이트한 말투로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9. 아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잘해서 칭찬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어머니는 기뻐할 것입니다.
10. 웃어른과 대화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써야 합니다.

시술형 평가

30쪽

- 예) 엄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은 학교에 갈 거예요.
- 예) 공손한 태도로 대화하고 있다. /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 높임 표현을 사용해 말하고 있다.
-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등
-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등
- (1) 예) 놀라면서 당황하는 표정
(2) 예) 친구를 말리려고 뛰어가며 잡으려는 몸짓
(3) 예) “안 돼!”라고 외치며 다급한 말투

- 대화할 때에는 대상에 따라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엄마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고쳐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진수의 말을 고쳐 쓴 경우	6점

- 승민이는 할머니께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제시된 답 중 한 가지 이상을 쓴 경우	6점

- 전화를 건 지원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민지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 정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지수에게 필요한 전화 예절은 무엇일지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정답 친해지기 지수의 대화 살펴보기

지수가 잘못된 점	전화를 받은 사람의 상황은 헤아리지 않고 계속 자신이 할 말만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말하기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 “정아야, 미안해! 내 생각만 말했구나. 네 생각은 어때?”

- 주어진 장면에서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고,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3)에 놀란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6점
(1)~(3) 중 두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4점
(1)~(3)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평가
교재

수행 평가

31쪽

-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어른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
- (1) 예) 사과주스는 사물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2) 나왔습니다. 등
- 네. 이 책이 재미있습니다. 등

- 할머니께서 웃어른이므로 ‘고맙습니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말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승민이가 할 말로 ‘고맙습니다’에 ○표를 하고, 할머니께서 웃어른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쓴 경우	10점
승민이가 할 말과 그 표현을 고른 까닭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사물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 예절이 아닙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는 사과주스가 사물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썼고, (2)에는 ‘사과주스 나왔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 경우	10점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바르게 쓴 경우	5점

- 대화를 할 때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고려해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점수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이 책이 재미있다’는 내용을 알려 주는 말을 쓴 경우	10점

정답 친해지기 대화 ㉠과 ㉡ 살펴보기

대화	대화 상대	사용해야 하는 표현
㉠	친구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선생님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야 합니다.



6.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단원 평가 1회

32~33쪽

1 ㉔ 2 ㉕

3 ㉖, ㉗, ㉘, ㉙

4 (1) ㉚ (2) ㉛ (3) ㉜ (4) ㉝

5 행복한 마음 등 6 ㉞

7 ㉟, ㊱ 8 ㊲

9 주은이가 말로는 사과한다고 했지만 표정이나 분위기, 말한 내용이나 행동이 사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

10 (1) ㊳

- 1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는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2 약속 시간에 늦은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찾습니다.
- 3 그림 ㉑~㉔에 알맞게 규리가 한 일이나 겪은 일을 차례대로 나열해 봅니다.
- 4 규리가 한 일이나 겪은 일에서 규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봅니다.
- 5 생일 초대장을 받고 행복해하는 장면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야호, 신난대!”라는 인물의 말과 폴짝 뛰는 인물의 행동으로 보아, 생일 초대장을 받고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6 기찬이는 운동에 자신이 없는데 운동회가 다가오자 심술이 났습니다.
- 7 기찬이는 운동을 잘 못해서 속상하고, 친구들에게 사과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을 것입니다.
- 8 주은이가 원호에게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자 원호가 화를 냈습니다.
- 9 주어진 장면에서 주은이가 하는 말과 표정 등을 볼 때, 사과를 받는 원호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주은이가 말할 때의 표정이나 분위기, 말한 내용, 행동 등이 사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게 써야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34~35쪽

1 (1) 고맙습니다. 등 (2) 빨리 나아가야 해. 등

2 (2) ㉑ (3) ㉒

3 (1) 걱정스러운 마음 등 (2) 자랑스러운 마음 등

4 ㉓, ㉔

5 기찬이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등

6 ㉕

7 ㉖, ㉗, ㉘

8 ㉙

9 (1) ㉚ (2) ㉛ 10 선미

- 1 (1)은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주시는 음식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는 상황이고, (2)는 아픈 친구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 2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여 말해야 하고, 특히 화가 났을 때에는 하고 싶은 말을 잠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 3 그림 ㉑에서 규리는 발표할 때 실수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림 ㉒에서는 짝에게 리코더 연주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4 기찬이는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았고, 운동회 날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 5 기찬이는 제비뽑기에서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고 울상이 되었으므로,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기찬이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기찬이는 친구들이 자신을 응원하지 않았고 열심히 뛰어도 뒤처지지만 하여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7 주은이는 사과하는 쪽지를 쓰는 것이므로 원호를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내용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8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장난처럼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 9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마음을 전한 표현을 찾습니다.
- 10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전한 친구는 선미입니다.

시술형 평가

36쪽

- 예) 괜찮니? / 다친 데는 없니? / 넘어져서 아프겠다. / 많이 아프면 내가 가방을 들어 줄게.
- (1)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속이 상했을 것이다. 등
(2) 수호네 하얀 강아지를 만나 털을 쓰다듬어 주면서 행복했을 것이다. 등
- 예) 글 ㉠, 규리아, 나도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면 짜증나고 속상한데, 너도 그랬구나.
- (1) 예) 흥분되고 기쁜 마음
(2) 예) 어리둥절한 마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 예) 어떤 일을 사과하고 싶은지 쓴다. /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쓴다.

-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넘어져서 아픈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을 쓴 경우	6점

- 글을 읽고 규리가 한 일이나 겪은 일을 쓰고, 그때 규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는 억지로 일어났다는 내용과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썼고, (2)에는 강아지 털을 쓰다듬었다는 내용과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3점

정답 친해지기 글 ㉠과 ㉡의 규리아의 마음



글 ㉠: 속상한 마음

글 ㉡: 행복한 마음

- 규리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의 마음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 ㉠과 ㉡ 중 한 가지를 골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쓴 경우	6점

- 기찬이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하여 열심히 응원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갑자기 친구들의 응원을 받게 된 기찬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는 흥분되고 기쁜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썼고, (2)에는 어리둥절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3점

- 사과하는 쪽지에는 어떤 내용들을 써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쓴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쓴다.' 중에서 한 가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6점

수행 평가

37쪽

- (1) 예) 주은이가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2) 예) 자신이 원호에게 잘못된 것 같아 미안했을 것이다.
- 예) 원호야, 안녕. 나 주은이야.
교실에서 활동할 때 네게 예의 없이 행동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 그리고 사과할 때에 툭툭 치면서 말해서 많이 기분 나빴지?
미안한 마음에 네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쑥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나 봐. 미안해.
예의 있게 행동하고 용기를 내서 제대로 사과할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 각 장면에 나타난 인물들의 마음을 파악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는 화가 난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썼고, (2)에는 미안한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5점

- 원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은이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의 감정은 어떠하며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잘 드러나게 쓴 경우	20점
사과하는 쪽지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경우	10점

평가
교재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단위 평가 1회

38~39쪽

- 1** 앉아서 하는 피구 **2** ③
3 예 캐나다에 많이 자라는 설탕단풍 나무의 잎이
 국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4 경훈 **5** ③ **6** (1) ② (2) ①
7 독서 감상문 **8 까닭** **9** ④
10 ③

- 1 이 글은 ‘앉아서 하는 피구’ 놀이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입니다.
- 2 굴린 공이 벽에 닿기 전에 잡으면 공에 맞은 것과 똑같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굴린 공이 아무도 맞지 못하고 벽에 닿아야지 수비하던 친구가 공격할 기회를 얻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을 읽고 친구에게 소개하면 좋은 점

-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 소개하면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친구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읽은 글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3** 캐나다 국기에 캐나다에서 많이 자라는 설탕단풍 나무의 단풍잎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자연을 담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채점 기준 캐나다 국기에 캐나다의 자연을 그렸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이 글에서는 캐나다 국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정훈이는 캐나다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메이플시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5 책을 읽고 감동 받은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 소개하려면 다른 친구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 6 각각의 그림에 알맞은 영롱이의 경험을 생각해 선으로 이어 붙입니다.
- 7 책을 읽은 뒤에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등을 쓴 글을 ‘독서 감상문’이라고 합니다.

- 8** ㉠에는 책을 읽게 된 까닭이 나타나 있습니다.
- 9**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내용은, 읽은 책의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 10**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중요한 내용이나 사건을 골라 씁니다.

단원 평가 2회

40~41쪽

- 1 ㉠, ㉡, ㉢ 2 (2) × 3 1949년
- 4 (1) ③ (2) ① (3) ②
- 5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 6 ②, ⑤ 7 ④
- 8 예 나뭇잎 모양으로 책 나무 환경판을 만들어 꾸
밀 것이다.
- 9 (1) ③ (2) ① (3) ② (4) ④
- 10 (1) ○ (2) ○

- 1 이 글에서는 놀이 이름과 준비할 내용, 놀이 규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2 글을 읽고 친구에게 소개한다고 친구의 좋지 않은 습관을 알 수는 없습니다.
- 3 1949년에 지금의 태극기 모습으로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
- 4 태극기에 담긴 의미에 맞게 선으로 이어 봅니다.
- 5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 ‘책 보여 주며 말하기’로 책을 소개하는 방법

- 책 표지를 보여 주며 제목을 말하고 책 앞표지나 뒤 표지에 있는 글과 그림을 소개합니다.
- 책 내용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말합니다.
-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그 까닭을 말합니다.

- 6** 이 글에는 인상 깊은 부분과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이 나와 있습니다.
- 7** ④는 책 내용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 8** 독서 감상문으로 교실을 꾸미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채점 기준 독서 감상문으로 교실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글 ㉠~㉢의 내용에 맞는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선
으로 이어 붙입니다.
- 10 책 제목,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
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쓰면 됩니다.

서술형 평가

42쪽

- 1 (1) 앉아서 하는 피구
(2)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피구장을 만들고 학급 친구 전
체를 두 편으로 나눈다. 등
(3)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한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이라
도 펴서 일어나는 자세가 되면 피구장 밖으로
나간다. 등
- 2 예 스무고개 놀이, 한 사람이 낱말을 하나 생각하
고 있으면 친구들이 질문을 해서 그 낱말이 무엇
인지 알아맞히는 놀이로, 질문은 스무 개까지만
할 수 있다.
- 3 예 소개하면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다. /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다. / 읽은 글의 내용
을 잘 정리할 수 있다.
- 4 (1) 예 『온 세상 국기가 펄럭펄럭』이라는 책의 제
목을 소개하고 있다.
(2) 예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 예 인상 깊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4) 예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한 까닭을 말하고 있다.
- 5 예 글 ㉠은 책을 읽게 된 까닭이고, 글 ㉢은 인상
깊은 부분이다.

- 1 글에서 소개하는 놀이의 이름과 준비할 내용, 규칙을
정리하여 써 붙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놀이 이름, (2)에 준비할 내용, (3)에 놀이 규칙 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1)~(3) 중 두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 2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놀이의 이름과 규칙 등을 써 붙
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자신이 알고 있는 놀이와 그 놀이 방법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3 글을 읽고 친구에게 소개하면 좋은 점을 써 붙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 줄 수 있다.’, ‘새 로운 지식을 알 수 있다.’, ‘소개하면서 친구와 더 많 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등 글을 읽고 친구에게 소개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4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붙입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책 제목, (2)에 책 내용, (3)에 인상 깊은 부분, (4)에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한 까닭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1)~(4) 중 두 가지 이상 알맞게 쓴 경우	3점

- 5 글 ㉠에는 책을 읽게 된 까닭이, 글 ㉢에는 인상 깊
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글 ㉠은 책을 읽게 된 까닭, 글 ㉢은 인상 깊은 부분 이라는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쓴 경우	6점

수행 평가

43쪽

- 1 『바위나리와 아기별』
- 2 (1) ② (2) ① (3) ④ (4) ③
- 3 예 학교에서 『가방 들어 주는 아이』라는 책을 읽
었다. 이 책은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껴 보
라는 뜻으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이다.
영택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아이이다. 석우는 우연히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
주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런데 매일 영택이의 가방
을 들어 주는 일이 무척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석우는 영택이와 차츰 친해지면
서 기쁜 마음으로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 주는 친
구가 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새 학년에 올라가 서로
다른 반이 된 영택이와 석우의 이야기가 나온다.
반이 달라도 등굣길에 영택이의 집으로 가서 가방
을 들어 주는 석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
면 친구를 아껴 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친구들 사이에 서로 아껴 주며 도
와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깨달았다. 나도
영택이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영택이와 석우처럼 서로
아껴 주는 친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평가
교재

1 글쓴이는 『바위나라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채점 기준	점수
『바위나라와 아기별』이라는 책 제목을 쓴 경우	10점

2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1)을 읽게 된 까닭, (2)를 책 내용, (3)을 인상 깊은 부분, (4)를 생각이나 느낌에 알맞게 선을 이은 경우	10점
(1)~(4) 중 두 가지 이상 알맞게 이은 경우	5점

3 읽은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리해 씁니다.

채점 기준	점수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 등을 넣어 독서 감상문을 쓴 경우	10점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단원 평가 1회

44~45쪽

- 1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어서
- 2 그날 밤 3 ②
- 4 (1) 두 번째 등 (2) 세 번째 등 5 예슬
- 6 ② 7 ㉠, ㉡, ㉢ 8 ①, ④
- 9 (1) 예 방송국
(2) 예 아나운서가 되어 뉴스를 전하고 싶다.
- 10 ③

- 1 베짚이는 할아버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먹어서 몸이 작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2 ‘그날 밤’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3 제시된 글에서는 장소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 4 ‘첫 번째’ 다음에는 일 차례를 나타내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야 합니다.
- 5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을 찾습니다.
- 6 이 글은 여행한 장소 변화에 따라 쓴 글이므로, 장소 변화에 주의하며 간추려야 합니다.

7 글쓴이는 ‘고인돌 박물관 → 동림 저수지 → 선운사’로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8 글쓴이는 소방관 체험을 해 보니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 글쓴이처럼 직업 체험관에 견학을 가게 된다면 어떤 체험과 활동을 하고 싶은지 써 봅니다.

채점 기준 (1)에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곳을 쓰고, (2)에 (1)에서 답한 장소에 어울리는 활동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10 한지 만드는 방법은 일 차례가 중요하므로 일 차례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46~47쪽

- 1 (1) 2 (2) 3 (3) 1 (4) 4
- 2 예 베짚이가 베를 얼마나 잘 짜는지를 시로 표현하였을 것 같다.
- 3 감기약 4 선미 5 (2) ○
- 6 ③ 7 ③
- 8 (1) 두 시 (2) 소방관 체험
- 9 이튿날 아침 10 ②

- 1 ‘베짚이가 베를 짜는 장면 → 할아버지가 베를 들고 쥐를 찾아가는 장면 → 할아버지가 본래 크기로 돌아오는 장면 →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의 차례입니다.
- 2 이 글에서 베짚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생각하여, 할아버지가 쓴 시의 내용을 짐작해 봅니다.

채점 기준 베짚이가 베를 잘 짠다는 내용으로 시를 썼을 것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이 글에서는 감기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이 글은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글이므로, 차례를 지켜서 내용을 간추리지 않아도 됩니다.
- 5 이 글은 동물원에서 간 곳을 장소 변화에 따라 쓴 글입니다.
- 6 장소 변화에 따라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주말에 다녀온 곳’입니다.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단원 평가 1회

50~51쪽

- 1 ㉓ 2 ㉕ 3 ㉔
 4 ㉑ 5 밝고 희망적인 말투 등
 6 ㉔ 7 ㉓, ㉕ 8 서은, 연석
 9 ㉓
 10 ㉔ 발표가 끝난 친구에게 박수를 보낸다.

- 1 무툴라는 “안녕.”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투루에게 마지막에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 2 투루는 무툴라를 무시하면서 거만하게 굴고 있으므로 눈을 피하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 3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껌짜를 열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므로, 부드럽고 간절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 4 나그네는 자신이 구해 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뻔뻔한 말투는 호랑이에게 어울립니다.
- 5 개구리들은 농부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밝고 희망적인 말투가 어울립니다.
- 6 토끼가 말뜻을 못 알아듣자 화를 내며 직접 껌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호랑이는 화를 잘 내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7 토끼는 자신의 계획대로 호랑이가 다시 껌짜 속에 갇혔고, 죄 없는 나그네도 구해서 가던 길을 간 것입니다.
- 8 토끼는 자신의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여 기쁜 상황이므로 마지막 행동에서는 통쾌한 기분이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 9 없는 소품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해도 됩니다.
- 10 친구들의 연극 발표를 관람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보아야 할지 생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이밖에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 연습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2회

52~53쪽

- 1 ㉔ 2 (1) ㉔ (2) ㉓ 3 호랑이
 4 ㉑ 5 ㉔ 6 ㉔
 7 ㉔ 괴로운 표정과 찡그려 울부짖는 듯한 몸짓
 8 (3) ㉑ 9 지호 10 ㉓

- 1 쿠부는 무툴라를 무시하면서 거만하게 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난 체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㉑은 자신감 있는 말투로, ㉔은 가소롭다는 뜻이 비웃는 말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성격 알아보기

	인물의 말	성격
무툴라	“쿠부,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난 줄다리기를 하면 널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 용기가 있다. / 자신감 있다.
쿠부	“감히 내 아침잠을 방해 하다니!” “네가? 너 같은 꼬맹이 가?”	→ 잘난 체한다.

- 3 소나무는 호랑이가 옳다고 하며 호랑이에게 나그네를 얼른 잡아먹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 4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소나무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간절한 말투가 어울립니다.
- 5 토끼가 나그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자 호랑이가 답답해했습니다.
- 6 고마운 표정과 즐거운 말투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그네의 말에 어울립니다.
- 7 토끼의 꾀에 넘어가 다시 껌짜 속에 갇힌 호랑이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껌짜 속에 다시 갇힌 호랑이의 괴로운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눈’은 눈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흥당무가 한 말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몸짓이 어울립니다.
- 9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거나 한 가지 역할을 여러 명이 나누어 맡을 수도 있습니다.
- 10 대사를 다 외우지 못했다면 극본을 보고 실감 나게 읽어 도 됩니다.

중간 평가

56~58쪽

- 1 ① 2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등
3 ②
4 자신의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등
5 ①, ⑤ 6 과학실 7 장난
8 ①
9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등
10 (1) ○ 11 ④ 12 ②
13 “아이고, 배야.”
14 (3) ○
15 예 과수원에서 감을 따 본 일
16 ② 17 ⑤ 18 잠꾸러기
19 (1) ④ (2) ② (3) ① (4) ③
20 예 ‘내’가 블링크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 드리려고 노력한 장면이 감동 깊었다.

- 1 궁으로 가게 되어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이 어울립니다.
2 기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할 때에 알맞은 말투를 생각해 봅니다.
3 인물의 말과 표정 등으로 보아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덩치가 지렁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렁이가 자신을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 인물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알아봅니다.
6 과학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과학실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분해합니다.
9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봅니다.

채점 기준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알맞게 정리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제목과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 봅니다.
11 ①은 ‘언제’, ②는 ‘무엇을’, ③은 ‘어디에서’, ⑤는 ‘생각이나 느낌’에 해당합니다.

12 동생이 아팠던 일을 쓴 글입니다.

13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씁니다.

14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 씁니다.

15 일 년 동안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씁니다.

16 축구를 하는 모습에 ‘와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7 감기약을 먹고 나니 몸에 ‘거북이, 잠꾸러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18 감기약을 먹고 몹시 졸린 상태를 잠꾸러기가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19 (1)-④, (2)-②, (3)-①, (4)-③에 맞게 색깔을 떠올렸습니다.

20 블링크 아저씨를 위한 ‘나’의 행동, ‘내’가 색깔을 떠올리는 방법 등 인상 깊은 부분을 씁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거나 감동적이었는지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중간 이후 기말 평가

59~61쪽

- 1 ③, ⑤ 2 높임 표현 3 ②
4 예원이 언니 5 ⑤
6 수호네 하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등
7 ③ 8 ① 9 이어달리기
10 ⑤ 11 ⑤
12 노랫말을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부른다. 등
13 『바위나리와 아기별』 14 (3) ○
15 ③ 16 (1) ○
17 고인돌 박물관, 동림 저수지
18 예 고인돌의 역사를 알았다.
19 뻔뻔하고 고마움을 모른다. 등 20 ①



- 1 상대가 웃어준다면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 2 승민이는 할머니께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 3 승민이는 바른 태도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 4 예원에게 전화를 건 것이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예원의 언니입니다.
- 5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6 수호네 하얀 강아지 털을 쓰다듬어 준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수호네 하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나’는 강아지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8 여자아이는 자신이 키우던 찌돌이가 죽어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 9 기찬이는 제비뽑기에서 ‘이어달리기’가 쓰인 쪽지를 뽑았습니다.
- 10 기찬이가 울상이 된 것과 친구들의 반응으로 기찬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1 국기에는 그 나라의 자연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 12 ‘책 보여 주며 말하기’, ‘노랫말을 바꾸어 소개하기’, ‘새롭게 안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 주며 소개하기’, ‘책갈피를 만들어 소개하기’, ‘책 보물 상자를 만들어 소개하기’ 가운데에서 소개하고 싶은 방법을 씁니다.
- 13 학교에서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입니다.
- 14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까닭이 나타나 있습니다.
- 15 감기약은 물하고만 먹어야 하며,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두 배로 먹으면 안 됩니다.
- 16 감기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알려 주고 있고, 차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17 처음에 고인돌 박물관에 갔고, 다음으로 동림 저수지로 이동했습니다.

- 18 장소 변화에 따라 글쓰기가 한 일을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글쓰기가 고인돌의 역사를 알았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보충 자료 ‘내가 한 일을 장소 변화에 따라 정리하기’

장소	고인돌 박물관	동림 저수지
한 일	고인돌의 역사를 알았다.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했다.

- 19 자신을 구해 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한 것으로 보아 호랑이는 뽀뽀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성격입니다.
- 20 호랑이가 귀찮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그네의 도움이 꼭 필요하므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투가 어울립니다.

평가
교재

전 범위 기말 평가 62~64쪽

- 1 진우
- 2 예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 3 건들장마 4 ㉠ 5 ㉠
- 6 동생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 주었다. 등
- 7 ㉠ 8 (1) ○ 9 ㉠
- 10 아저씨가 진짜 색깔을 볼 수 있는 것 등
- 11 나왔습니다 12 ㉠ 13 ㉡
- 14 예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실수를 할까 봐 떨렸던 적이 있다.
- 15 그 나라의 땅 16 ㉡
- 17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등
- 18 열한 시 19 ㉠, ㉡ 20 ㉡

- 1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는 웃지 말고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하며 장난치듯 하면 안 됩니다.
- 2 자두는 미미가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몰래 발레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자두의 마음을 짐작하여 표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가을에 비가 쏟아져 내리다가 번쩍 개고 또 오다가 개는 장마를 건들장마라고 합니다.

- 4 이 문단에서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봅
니다.
- 5 ‘앉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서다’입니다.
- 6 ‘나’는 아픈 동생을 걱정하며 동생의 이마에 물수건을
엮어 주었습니다.
- 7 ‘나’는 동생이 아픈 일이 평소와 달리 특별하게 생긴
일이고,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인상적이었기 때문
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 8 아기가 오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낱말과 낱말
사이의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
은 앞말에 붙여 씁니다.
- 9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 드
리고 싶어 했습니다.
- 10 ‘나’는 아저씨가 진짜 색깔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
을까 생각했습니다.
- 11 ‘나왔습니다’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 12 사물인 사과주스를 높여서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 13 ‘나’는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까 봐 불안하고 걱정스
러운 마음입니다.
- 14 실수를 할까 봐 긴장했던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 15 국기에는 그 나라의 땅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 16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과 그 까닭을 책갈피 앞뒤
에 써서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 17 민기가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고 싶
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채점 기준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8 열한 시에 제빵사 체험을 하려고 제빵 학원으로 갔다
고 했습니다.
- 19 소품 설계관에서 제빵 학원으로 장소가 바뀌고 있습
니다.
- 20 쿠부는 거만한 태도로 잘난 체하고 있으므로 무톨라
의 말이 가소롭다는 뜻이 크게 웃으며 읽는 것이 어울
립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